



이천시립도서관 2015 글모음집

책바라기



이천시립도서관

이천시립도서관 ... 04

길위의 인문학 | 도서관 주간행사 | 독서의 달 | 시민문화교실 |

청미도서관 ... 06

도서관 견학 | 도서관 주간행사 | 독서의 달 |
상반기 책놀이 프로그램 | 청미어린이도서관 개관1주년 기념행사 | 하반기 책놀이 프로그램 |

효양도서관 ... 10

개관기념행사 | 도서관 주간행사 | 독서문화교실 | 독서의 달 행사 |
제4기 독서문화교실 | 주말프로그램 | 효양중 재능나눔 프로그램

어린이도서관 ... 16

도서관 주간행사 | 독서의 달 행사 | 북스타트 부모특강 | 여름방학프로그램 |

일반부

- | 김창덕 | 시와 함께 하는 삶 ... 24
- | 김순래 | 인생이란 말 앞엔 무조건 무너진다. ... 34
- | 유선헌 | 욕망이 갈등을 더하다 ... 40
- | 강서영 | 토지위에 피어나는 잡초... 44
- | 송영주 | 어머니, 당신도 여자입니다... 50
- | 오승혁 |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궁극증은 삶과 죽음이다... 54

고등부

- | 김수빈 | 앵무새 죽이기-느껴지는 진실한 분노... 60
- | 최영주 | '도가니'를 읽고... 64
- | 홍소연 | 논문 자들의 도시를 읽고... 68
- | 윤수빈 | "세상은 혼자 아니야"... 72
- | 정희정 | 힘들었던 삶을 이겨내고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로... 75
- | 박하은 | 발이 닿지 않는 아이... 78
- | 최유림 | 미래의 PD 최유림의 일기... 82
- | 김유나 | 안녕하세요, 선배님... 86
- | 한지오 | 엄마를 부탁해... 89

중등부

- | 표성식 | 빨간 구두에 담긴 사연... 94
- | 김나은 | 우아하지 않은 거짓말... 97
- | 신 윤 |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 101
- | 김다은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104
- | 이준혁 |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107
- | 이 술 | <번데기 프로젝트>를 읽고... 111
- | 한수진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114
- | 신진현 | 죽음을 결심하고 얻은 '또 다른 오늘'... 118
- | 장효진 | 상상의 상대성 이론... 122

초등부

- | 오한서 |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128
- | 임은수 | 행복한 헤린이에게... 130
- | 이재준 | 이사가는 날... 132
- | 김연후 | 나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 수비대... 134
- | 오효은 | 안돼 데이빗... 136
- | 박하윤 | 마음의 눈... 138
- | 황다윤 | 형광고양이에게... 140
- | 김초은 | 잔소리 해방의 날을 읽고... 142
- | 최예은 | 백만 후디스 운동... 143
- | 박진서 | "엄마의 팬클럽"을 읽고... 146
- | 임지빈 | '내동생 싸게 팔아요'를 읽고... 148
- | 이도은 | 방귀공주와 99번째 왕자... 150
- | 박지연 | 소중한 나의 나라와 가족... 152
- | 김다연 | 구름빵 엉덩이... 155

길위의 인문학



고미숙특강



남양주탐방



남한산성



수원화성탐방



영화와 함께하는 인문학

시민문화교실



자녀글쓰기 지도&생각그물

도서관주간행사



원화전시회



Lunar-Hill의 오페라&뮤지컬 음악여행



소이웍스 타블렛 만들기



냄비받침&키친타월걸이

독서의 달



샌드아트



원화전시



캘리그래픽캘리

도서관 견학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견학1



도서관 견학2



나만의 쿠키 만들기



샌드애니메이션 공연

도서관주간행사



꼬까신만들기



양 만들기



우리문화체험 닥종이공예



원화전시



사이언스매직쇼



작가초청강연회



장호원읍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



테마도서전시

상반기 주말프로그램



상반기 주말프로그램1



상반기 주말프로그램2



책놀이 프로그램1



책놀이 프로그램2

하반기 주말프로그램



하반기 책놀이프로그램1



하반기 책놀이프로그램2

청미어린이도서관 개관1주년



청미어린이도서관 개관1주년



그림책 읽어주기



생일떡나눔



책놀이 DAY



책표지 가방만들기



뮤지컬 갈라콘서트

개관기념행사



팝콘나눔



추억의 뽑기



샌드아트공연



생일축하 컵케익 나눔

도서관주간 행사



아동영어교육



독서토론 및 서평쓰기 특강



책표지그림그리기



캘리그래피로 독서명언 써주기

독서문화교실



독후활동프로젝트



오감발달 쟁쟁 놀이터



캘리그래피



핸드소잉



가족뮤지컬



수제도장 만들기

독서의 달 행사



책표지가방만들기



퍼즐액자만들기

제4기 독서문화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놀이A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놀이B



엄마랑 조물조물 책놀이A



엄마와 조물조물 책놀이B



프랑스 자수만들기1



프랑스 자수만들기2

주말프로그램



천연화장품 만들기



냅킨아트 실내화 만들기



창의요리

재능나눔 프로그램



효양중 재능나눔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고대영 작가 초청강연회



다용도정리함만들기



작은음악회



도서관 탐험대



아트시계만들기



원화전시회



독서대만들기



서민작가 초청강연회



북스타트부모특강



북스타트부모특강 1



북스타트부모특강 2



북스타트부모특강 3



북스타트부모특강 4

여름방학프로그램



영어뮤지컬



편편잉글리시



과학이뭐예요



독서교실



이천시 도서관 위치도



독서는 지혜의 바다에 던진 낚시와 같다.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땐 위안이 된다.
-키케로-

2015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일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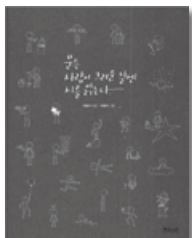


시와 함께 하는 삶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김 창 덕

[경기도 이천시]



삶을 돌아보면 한 권의 시집 같은데, 요즘은 보통 시를 읽을 수가 없다. 학창 시절에는 종종 시를 읽고 쓰며, 없는 실력이나마 백일장에도 나가곤 했는데, 직장생활과 결혼으로 점점 멀어지니 도대체 시가 뭔지도 잊고 살았다. 그러던 중에 눈에 보인 책 한 권이 바로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였다. 엮고 그림을 그린 이가 박광수 씨라고 해서, 삶의 단편을 재치 있게 표현한 「광수 생각」이 떠올랐다. 참 재미있게 읽은 만화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박광수 씨가 골라 담은 시 백편과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덧붙여 서문 한 편과 꼭지마다 적어 놓은 에세이도 세 편이 실려 있다. 그 모두가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때론 나의 10대부터 20대를 지나 30대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시가 있었다. 교과서에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때에는 시집이 지금보다는 대중적이었던 것 같고, 종류도 다양하였다. 지금도 기억나는 시집은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이정하 시인의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류시화 시인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다」 등이 있다. 아직도 시골 고향집 책꽂이에 꽂혀 있을까? 그 때는 얇고 손에 잡기도 좋은 시집이 참 좋았는데…….

이 책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시도 있지만 모르는 시들이 더 많았다. 한 장 한 장, 한 편 두 편 읽어 가니 없던 여유도 생기고 나만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삼십 년 전의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를 따라 떠난다.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함께 걸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울고 있는 사람에겐 손수건 한 장보다
기대어 울 수 있는 가슴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그대를 만나고서부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어디 있는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도 못 할 만큼

그대가 그림습니다. (이정하, '기대어 울 수 있는 가슴')

20대를 떠올리면 꼭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를 생각하며 이
시를 읽고, 옮겨 적고, 외워가며 참 많은 날들을 잠 못 들고 눈물 흘
렸다. 그에게 기대어 울 수 없었지만, 내가 그의 든든한 가슴이 되
어주지 못했지만 그렇게 보내온 세월이 모여 지금의 내가 있다. 사
람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어떤 건지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삶을 배웠다. 나를 꿈꾸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살
게 한 사람에게 나도 안부를 전한다. '당신, 잘 지내나요? 건강하시
죠? 어느새 불혹을 넘겼을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
기고, 직장이 있어 늘 똑같은 삶이지만 만족하고 살고 있겠죠? 저
도 그렇게 잘 지낸답니다.' 이제 그는 아무 때나 생각나도 가슴 한
구석 실금 같은 찌릿함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종종걸음으
로 세상을 돌아다니다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다.

저처럼

종종걸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찾아나서고

싶다…… (황인숙, '비')

지리산 삼신봉을 오르며 서로를 탐색했고,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했다. 황인숙 시인의 '비'를 읽으면 정말 종종거리며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있는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 아울러 종종거
리며 치열하게 살았던 신입 시절이 떠오르고, 지금은 그런 열정이
식다 못해 지쳐 추레한 내 모습에 실망한다. 내 안의 어딘가에 아
직 채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어 다시 피어오르면 이 삶도 다시 뜨
겁게 타오르지 않을까. 인생은 사십부터라는데…….

사십이 되면

더 이상 투덜대지 않겠다.

이제 세상 엉망인 이유에

내 책임도 있으니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무조건 미안하다

아침이면 목 잘리는 꿈을 깨고

멍하니 생각한다

누가 나를 고발했을까

더 나빠지기 전에

거사 한 번 해보자던 일당들은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
하루 세 시간 출퇴근하고
열두 시간 일하고
여섯 시간 자고
남은 세 시간으로
처자식을 보살핀다
혁명도 없이 지나가는 서른 아홉
지루하기도 하다 (전윤호, '서른 아홉')

내 나이도 어느새 서른 아홉이다. 이 시와 다른 점은 난 여전히 투덜대고 있고, 세상이 엉망인 이유에 내 책임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으며,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도 없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아직 내게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거니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겪으며 세상살이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낀 탓이다. 세상에 내 편은 오로지 '나'뿐이라고 느낄 때도 많았고, 때로는 나조차도 내 편을 들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했었다. 나 참 못났다. 인생의 반 정도를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일희일비 하며 오만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자책에 위로를 보내는 시도 있다.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 나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 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

학사모를 쓴 윤동주 시인에게 반해 같은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꾸다 '별 헤는 밤'을 외우며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알게 되었다.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니 이 어찌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대로 살아 갈 수 없을 텐데, 변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 나가라고 하니 마음이 참 편해진다. 소나기가 내리면 맞아야지 우산 없음을 탓해보야 짜증만 날 뿐이다. 매순간 즐기며 만족하고 살아야지. 지금은 내 일에서 기쁨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며, 내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겠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마중하, 딸을 위한 시)

딸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주는 엄마인지, 좋은 엄마인지 물어본다. 늘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웃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다그치게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무서운 얼굴로 겁을 준다. 그런 나는 필히 좋은 엄마는 아닐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항상 엄마에게 야단과 회초리를 맞아 가며, 잔소리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은 내게 불행한 과거로 남아있다. 서러움 가득한 딸의 마음을 모르시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참 엄하셨다.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은 해묵은 감정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시절 사진 속 표정 없는 내 얼굴을 보며 엄마로서의 내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우리 딸이 착하고 공부도 잘 하면 좋겠다. 물론 관찰을 잘 해서 꽃이 어떻게 피고, 노을이 어떻게 물들어 가는지, 가을 빛은 얼마나 환상적인지, 이슬의 영롱함에 잎맥은 어찌나 싱그러운지 알아채면 좋겠다. 사람 관찰도 잘 해서 입만 웃고 있는 표정과 눈까지 함박 웃는 웃음의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고, 눈치가 빨라서 남들에게 미움 받지 않으면 좋겠고, 친구들보다 뛰어나도 겸손할 줄 알며, 어린 사람보다 모자라도 자신감을 갖고 살면 좋겠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비난받아도, 자식 욕심은 버릴 수 없을 듯하다. 비

단 자식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동반자에게도 욕심이 많다. 그는 국수를 좋아한다. 특히 내가 끓여주는 잔치국수 한 그릇에 엄지를 척 하니 올려준다.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내가 읽던 책을 소파에 두고 부엌일을 하고 있으니 책을 넘기던 남편이 이 시를 읊어주며 국수를 먹자고 한다. 나는 종종 국수를 삶는다. 한 그릇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차라리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차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육수를 우려내 간을 하고, 고명으로 엮을 숙주, 호박, 버섯을 채 썰어 볶고, 양념장을 만들고, 국수를 삶아 한 상 차려 내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허겁지겁 먹는다. 고작 국수 한 그릇에 오랜 기다림이 사치 같지만, 맛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은 행복이 넘친다. 요양원에 계시는 시부모님께서도 국수를 참 좋아하셔서 종종 만들어 간다. 국수 한 그릇에 온 가족이 등 따시고 배 부르니 내 마음도 뿌듯하다.

시 백 편을 다 읽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리되고,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을 하게 된다. 언제나 삶 속에 시가 있고, 시가 곧 삶이다. 이런 시를 어떻게 잊고 살았는지 의아하다. 내가 참 바쁘게

도 살아왔나 보다. 불혹을 앞두고 깨달음이 있으니 이 또한 기쁨이다. 이제는 여유를 챙겨 종종 꺼내 보아야겠다. 그 시들이 남은 삶의 모범답안도 줄 것이라 믿는다.



인생이란 말 앞엔 무조건 무너진다

《여덟 단어》

김 순 래

[경기도 이천시]



돋보기를 건 귀가 배기고 아프다. 옆으로 돌아 누워 한참을 읽으니 머리에서 지끈지끈 소리가 나고, 책을 들고 있는 팔이 툭 떨어진다. 하는 수 없이 보람줄을 끼우고 책을 덮어 버린다. 예전에는 얼른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누워 덩굴면서 싫도록 말랑말랑한 소설책을 읽는 것이 소망이었다. 지금은 놀자고 보채는 아이도, 밥을 달라고 소리치는 치매기 있으신 시어머니도 없다. 그저 넘치는 것이 시간이고 남는 것이 시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잠시도 들고 있기가 힘이 부친다.

그래도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책을 들고 노는

것 밖에 없다. 남들이 나이 들어 한다는 취미 생활 하나 제대로 시작한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책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뭇하나, 어렵사리 잠시 읽은 내용도 앞뒤가 섞이고, 연결이 되지 않는데……. 문맹자가 아니다 뿐이지 문해자가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 서럽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은 책이 아니라 글자일 뿐이다.

자꾸만 놓치는 문맥의 의미 때문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방법을 써 보기로 한다. 연필을 들고, 내 눈과 머리가 갈 수 있는 한계에서 빗금을 그어, 내용을 이미지화 시켜 본다. 그래도 이 방법은 잠시 집중할 수 있고 내용의 한 부분을 내게 전달해 주는 기쁨을 주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어렵사리 책장의 마지막 장을 덮은 것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박웅현의 〈여덟 단어〉다.

〈여덟 단어〉는 저자가 인문학 강의를 위해 여덟 개의 주제를 꼭지로 하여 저술한 책이다. 자존(自尊), 본질(本質), 고전(古典), 견(見), 현재(現在), 권위(權威), 소통(疏通), 인생(人生)이라는 우리 곁에 있는 여덟 개의 단어를 깊이 있게 사색하고 고민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풀어 놓고 있다.

“자존”은 방황하는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이고,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준점을 너에게 두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빼아픈 말을 발견하였다. 자존감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교육이 아닐까 싶다는 말에 뒤통수가 땀난다. 자기를 사랑

하라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다름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서울의 SKY 대학이나 S나 H 등등과 같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틀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교육에 우리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자라나고 있다. 참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늦은 나이에 수영을 시작했다. 세 명이 함께 수영장에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은 몇 년 전이지만 한 때 수영을 해 본 적이 있고, 한 사람은 내 나이의 반으로 젊고, 난 수영을 한 적도 싱싱한 젊음을 갖지도 못했다. 이들과 함께 시작할 때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함께 시작함으로써 시작에 대한 용기는 얻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해 갈수록 완전 좌절에 빠질 것 같아 채 이틀을 못가고 고민에 빠져 들었다. 다들 중급반으로 상급반으로 쪽쪽 올라갈 때 나만 하염없이 발차기를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그런데 어쩔 이 순간에 만난 것이 박웅현의 “본질”의 한 구절이다. 내가 수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수영을 하는지, 땀을 흘리기 위해 수영을 하는지 다독다독 나를 다독이며, 나의 수영의 목적은 아픈 어깨를 치료하고 운동을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초보 레인에서 끊임없이 발차기를 하며 빠지지 않고 운동을 가고 있다. 늘 평상심을 잃고 허둥거릴 때마다 우린 본질에 대하여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박웅현은 “고전”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있다고 했다. 침성대도 좋은 시도, 그림도 그것에서 어느 날 돈오(頓悟)를 주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고전이라고 했다. 고전은 그냥 고전이 아니다. 몇 천 년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울림으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제 경주에 가면 다시 키 작은 침성대 앞에 서서,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의 의미와 놓인 자리를 마음을 다하여 보고 와야겠다. 아마도 다음 장에서 말하는 “견”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그런 힘 말이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웅현의 〈여덟 단어〉를 읽으면서 내 가슴을 가장 크게 와서 친 것은, ‘세상에 현재에 살지 않는 것은 인간뿐이다.’라는 구절이다. 세상의 모든 개들, 세상의 모든 꽃과 들꽃도 현재 이외의 시간에 살지는 않는다.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맞다. 난 왜 나의 이 현재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툄툴거리고 사는 것일까? 부정한다고 내 현재가 과거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현재에 내가 없으면 살아 있음이 아닌데, 내 남편과 내 가족을 내 현재로 받아 들이는 그런 노력을 내 인생을 바쳐서 해 보아야 하리라.

앞의 내용 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읽어가는 내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다. 영어의 권위에 굴복하지 마라.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다. 얼마나 이 대목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를 것인가! 평생을 공부하고도 평생을 주눅들어 하는 영어... 내 능력 내 발음으로 반기문 총장처럼 말해 보자. 그래 자신 있게 콩글리쉬를 하자.

근간에 책을 읽으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작가들의 신작에서 느끼는 신선한 충격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글 거리가 다 떨어진 모양인지, 요즘은 신선하고 산뜻한 창작품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하긴 인류가 생기고 수 억의 사람들이 수십 억편의 글들을 썼으니……. 사람의 인생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또한 사람의 삶이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최근 우리나라 소설가들도 소설보다는 기행기라든가 기행중의 산문, 혹은 다른 이들의 책을 읽으면서 감명 받은 것, 다른 사람의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 혹은 옛글에 기대어 수상록과 같은 글들을 쓰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박웅현의 〈여덟 단어〉도 자신이 일을 하면서 필요해서 읽었던, 읽다가 보니 좋은 생각과 감동을 얻어 자신의 일에 응용하게 되었던, 글의 반이 자신의 독서 이력에 대한 피력이다.

그 아쉬움 속에서도 참으로 작가가 존경스러운 것은 자신이 만난 작품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녹여서 자신의 삶과 일에 투영하여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나는 읽고 돌아서면 잠시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책을 한 권 다 읽었다는 기쁨과 문득 머리에 잔상처럼 스쳐 가는 마지막 페이지의 여운뿐이다. 그렇다고 책을 읽으면서 책에 밑줄을 전혀 긋지 않거나 책의 귀퉁이 여백에 짧은 단상을 적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책을 덮으면 그뿐, 어딘가에서 나의 독서 이력을 끌어내서 맞춤형에 써먹지를 못한다. 다른 이들만큼 책을 안 읽은 것도 아닌데 막상 어느 자리에서 필요해서 전에 읽은 어느 부분을 끄집어 내려면 전혀……. 하얗게 머릿 속이 비어 버리는

데. 작가의 메모 습관과 꼼꼼함은 자신의 독서를 우리 독자에게까지 연결시켜 파장을 주고 있다.

‘인생’을 나는 두려워만 하지 않았나? 왜 도전하고 흥미진진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나?

이렇게 가을 햇살이 방으로 깊게 빗겨들면, 고개 떨구어 책 한 줄, 고개 들어 하늘 한 번, 두리번 두리번 날으는 잠자리의 유영을 고개짓으로 따르면 한 줄을 십분씩이나 되뇌면서도 이 책을 읽고 있다.



욕망이 갈등을 더하다

《무진기행》

유 선 혜

[경기도 이천시]



글에 대한 생각을 자신 있게 써내려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마음 편하게, 그래서 오래전 그저 읽어 두었던 책을 집어 들었다. 새삼스럽게 내용이 다시 생각나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재미있어서 읽어 내린 책이 아니라서,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다. 책만 읽고 그저 그 상황의 감정만 느끼면 되는 책읽기를 하다가, 좀 더 깊게 생각 하면서 읽어 내려가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쓰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정리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무진여행!

무진으로의 여행은 무엇으로 인해 복잡하게 일이 생겨서 해결해

야 할 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도시 대기업을 다닌 나.

제약 회사가 합병되면서 실업상황이 되자 애인과 헤어지게 되고 결국 젊은 미망인과의 결혼으로 장인 제약회사의 전무의 자리에 앉게 된다. 회사일로 인한 피난처. 아마 도시는 현실의 장소이고 무진은 그 자체대로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곳. 나와 도시 그리고 무진의 관계인 것이다. 결코 같아 질 수 없는 외적인 욕망의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이라면 안락한 현실이나, 아니면 고된 현실이나를 두고 분명한 갈등을 겪게 된다. 나는 그 사이에서 분명, 고된 삶이 될 수 있지만 나를 새 출발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무진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를 저 윗자리로 올려둔 현실의 도시, 그 자리 또한 버릴 수 없는 자리이기에 갈등하고 욕망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후배와 중학교 음악선생, 그리고 나.

후배와 후배가 좋아하는 음악선생 사이에서 내가 나타나 음악선생의 마음을 뺏는다. 후배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이다. 세 사람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하지만 어디 사랑이 사람 마음 정해진 대로 가던가? 후배의 사랑은 그저 짝사랑에 지나지 않아 음악선생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여선생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후배. 사랑이라는 단어로 갈등한다. 분명 음악선생에게의 화살표는 후배가 아니니 말이다. 후배의 내적인 갈등과 사랑에 대한 욕망이 그려진다.

음악여선생과 아내 그리고 나.

아내는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음악선생은 나로 인해 나은 삶을 살고자 했고 그 사이에서 나는 현실적 안정을 더 중요시 한다. 잠시 가진 순간적 사랑이 아내의 급 전보를 받고 잠시나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다.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두면서, 전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시점에서 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순간의 사랑에 아쉬움만 남기고 무진을 떠나게 된다. 아내와 여선생과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연결된 구조로 내적 욕망뿐 아니라 외적인 현실적인 욕망까지 비춰어지고 있다.

중학 동창 '조' 그리고 후배, 그리고 여선생.

동창 '조'는 과거 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한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선생에게 노래를 시키는 모습.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후배. 후배는 여선생을 사랑하지만 여선생은 이곳 무진을 떠나고 싶어서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이보다는 나를 저 만큼 올려다 줄 자를 찾고 있던 것이다. 무진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로 말이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서울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사랑이라는 것으로가 아닌 것 같다. 여

선생의 욕망에서 오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무진은 피난처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처. 그곳에서 용기와 계획이 술술 나온다. 다시 말해 서울과 무진은 나를 두고 욕망을 만들어주고 해결해준 관계라 볼 수 있다. 나는 이 욕망 앞에서 무진과 서울을 오고 간다. 보내진 전보와 인숙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나. 전보로 인해 다시금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해 준 인숙을 향한 갈등하는 마음속 욕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갈등은 인숙에게 전해 주려했던 편지를 찢음으로 갈등의 한 구석이 사라지지만, 여운은 더 강하게 남아버린다. 간혀있는 욕망에 서로가 매체이자 주체가 된다. 나 또한 어느 만큼의 욕망에 사로 잡혀 살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안식이 되는 무진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갈등, 욕망을 숨기고 또는 욕망을 그대로 비춰어 내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갈등이 삶에 늘 존재하는 것은 맞는 말인 듯싶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말이다. 가끔 나도 무진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처음 그대로의 나만을 생각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놓치고 살았던 그리고 시간에 떠밀려 전진만 하고 살았던……. 지금 현재에서 조금은 뒤로 한 걸음 천천히 빠져나와 무진을 향해 떠나보련다. 마음만이라도 그리하고 싶다.



토지위에 피어나는 잡초

《토지》

강 서 영

[경기도 이천시]



춤추는 연꽃빛 사이로 작열 하는 태양이 나를 태우면, 내가 타듯이 책 속의 인물들의 삶이 타 오른다. 마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춤추는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처럼 역동적인 그들의 삶이 내 삶에 바람을 일으킨다.

여름부터 소설 ‘토지’바라기를 시작했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까지 ‘토지’의 등장인물들의 생명력 넘치는 삶이 고스란히 남아 나를 따스함으로 가득하게 차오르게 했다.

‘토지’를 읽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엄마는 지금 몇 권 짜 보느냐는 아이들의 물음이 큰 격려로 다가왔고 그것은 마치 나 자신과의 대결과도 같았다.

나는 네 딸들의 엄마다. 모든 엄마의 삶이 그렇듯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과도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찾기 위한 여행으로 책을 선택한 건 2015년 올해부터이다. 우연찮게 찾아온 귀한 인연으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의 선배와 후배를 만나게 되었고 덕분에 외롭지 않게 책으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함께 ‘토지’를 읽게 되었다. 어느 유명인의 추천도 한 몫을 했고 우리문학의 걸작을 읽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토지’는 우리가 만날 때 마다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 하는 공통된 관심사요 화젯거리였다.

자연스레 아이들도 덩달아 ‘청소년 토지’를 읽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네 딸들은 아직 어린 나이로 몇 해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엄마, 이 책 제게 물려주세요.” 라며 당부를 잊지 않았고 “엄마, 지금 몇 권 읽으세요?” “○○이모는요?” “○○이모는 몇 권 짜예요?”라고 물어보며 책 읽는 엄마들을 격려해 주었기에 고맙게도 긴 ‘토지’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념을 가진 서희의 행보에 따라 서희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이 오고 또한 갔다. 그 등장인물들을 여기에 모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진 끈질긴 생명력은 나의 가슴에 새겼다.

시대적 배경은 일제치하의 식민지 전부터 광복의 그 날까지였기에 과거 폐쇄적인 계층제도인 신분제도가 무너지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신분제도의 악습 때문에 백정

은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해 독립운동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그는 불구자였고 그의 사랑도 가정도 불구인 채로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또한 신분제도를 막론하고 여성의 지위는 처참했다. 남성의 성적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노리개와 같았고 신학문을 했다는 신여성들조차도 소유물마냥 창녀 대하듯 다뤄지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서희는 도망치듯 떠나 정착한 간도에서 그녀의 하인 길상과 월선의 백부인 공노인의 도움으로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신분제도를 뛰어넘어 그녀가 부리던 하인인 길상과 결혼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조준구에게 빼앗긴 토지를 찾기 위한 일념으로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았고 길상은 그런 서희를 떠나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이라는 자기 길을 찾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간도에 남은 길상을 보며 서희는 울분을 토했고 나도 같은 어미의 입장으로 길상이가 밍기도 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

결국 빼앗긴 땅을 되찾은 서희는 두 아들인 한국이와 윤국이가 자라서 여전히 종놈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 길상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다.

종놈인 길상은 조선에 돌아와서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만 했던 것은 종놈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의 지식인보다는 종과 백정, 포수, 살인죄인의 아들인 그 시대의 불구자들이 오히려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고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인간의 가치를 그 누가 폄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 모두는 생명을 가진 인간 그 자체로 가치로운 삶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삶의 생명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부모가 된 나로서는 신분제도의 수레바퀴 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또한 그 무엇보다 자식에게 자신의 천한 신분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잡초 같은 강인한 삶이 세찬 바람처럼 다가와 나를 흔들었다.

네 아이의 엄마로서 힘이 들고 지쳐있는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던 차에 '토지'를 읽으며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토지'의 인물들에 점점 매료된 것이다.

실은 한동안은 우울했다. 모두 어찌 이토록 잔인하리만큼 허무하게 죽어야 했던 말인가. 그토록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덧없이 가버렸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일제치하의 잔인한 역사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강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나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겠다고 가슴에 불꽃을 피우게 했다.

누구나 각자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이다. 나의 길은 그 누구의 길과는 다르다.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나이 40을 코 앞에 두고 생각이 많아지지만 하루하루를 가족, 지인들과 푸르게 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용기와 도전을 품게 되었다. 그들도 생명을 머금고 살았으므로 나도 살아가리라고.

‘토지’바라기를 마치면서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 다시 ‘토지’를 함께 읽을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그땐 토지의 배경인 하동일대와 지리산을 비롯해 경남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 원주시의 토지 문학관과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딸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을 떠나고 싶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려면 역사공부도 많이 해야겠다.

만약 통일이 되어 간도와 만주까지도 기차여행을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광복이 되어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처럼 태극기를 휘날리며 북한 땅을 지나 간도와 만주까지 기차여행을 하고 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 네 딸들이 우리 문학에 길이 남을 ‘토지’를 쓴 작가가 여류작가 ‘박경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문학보다 삶을 우선으로 살다가신 박경리님의 “생명은 생명으로서 평등하다”는 심장을 울리는 그 뜻을 잊지말고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토지’는 생명력이다. 나도 살아야겠다는.

비록 화려한 꽃처럼 피어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토지에 뿌리내린 푸르른 잡초가 바람을 맞으며 누웠다 다시 바람을 맞으며 일어서는 것처럼 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박경리님의 글을 옮겨본다.

“시간을 가득하게 살아보고 싶다.

싱그러운 풀 같고 흐르는 강물같이...”



어머니, 당신도 여자입니다.

《어머니》

송 영 주

[경기도 이천시]



40년을 함께 사시다 40주년 결혼기념일에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신 아빠를 나는 문득문득 그리워 하지만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시는 엄마의 눈빛을 보아서였는지 엄마와 호국원에 다녀온 다음날 청소하다 책꽂이에 장식용처럼 꽂혀있던 이 책에 손이 갔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꼭 읽어보라고 사 주신 책 중에 신사임당이란 위인전이 있었다. 남자 아이들이 이순신전을 읽으며 장군의 꿈을 키울 때 여자 아이들은 신사임당을 읽으며 현모양처를 꿈꿨으리라 생각된다.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난 그랬다.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면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노래를 조금 잘 부르면 가수를 꿈꾸는 것처럼 그냥 무심한 꿈 중의 하나가 현모양처였던 것 같

다. 그리고 그 현모양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다. 현재를 살고 있는 여자가 현모양처가 되는 길은 슈퍼우먼이 되는 길과 같다는 것을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고 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까지만 해도 몰랐던 일들이었다. 나도 신사임당처럼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꿈꾸게 만들었던 수많은 책들은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의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해 줄 뿐이었다. 책대로하면 될 것 같지만 책속의 아이와 내 아이는 달랐다. 이것만 먹이면 몇 시간 폭 잔다고 했던 책과는 다르게 아이는 수시로 깬고, 이 맘 때는 걷고 말한다던 아이는 기고 있고, 엄마라는 단어밖에 못 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첫 아이를 키워 본 엄마라면 다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둘째는 조금 수월하게 키울 듯 했지만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 나오는 물건이 아닌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는 또 다르고 또 달라서 세 아이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금도 어느 정도 적응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당황하고 있는 나를 순간순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의 주인공인 성희씨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엄마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독히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너만 사랑 한다 속삭이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아내에게 무심해지며 이십년을 넘게 바람을 피운다. 하지만 자신은 점점 나태해 지고 결혼 생활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식과 정신과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그냥 참고 살았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이기에 그녀에게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기에 가능했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엄마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귀찮아했다. 자신의 모습에 지쳐 갈 때 쯤 삼 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버린 그녀. 짧은 삼 개월이란 시간동안 몇 십 년 참고 살았던 응어리들을 남편에게 쏟아냈고, 순수했던 여고시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남자에게 나도 소녀였고, 여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성희씨는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로 살다갔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어머니라는 욕망으로 자신도 모르는 힘을 불러일으켰으며 집으로 돌아와 언제 암이라는 고통이 나를 잠식했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의 방을 정리하고, 정원에 물도 뿌리며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낸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을 살고 싶었던 것 같이 그 하루를 끝으로 삶을 내려놓았다.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고 훌륭한 어머니라는 정답은 없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고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남편에게 무시당해도 아이들에게 소외당해도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는 자리가 어머니라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셨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자들은 사회로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자로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 굳이 어머니라는 명찰을 달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엄마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도 우리 엄마의 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무섭게 우리들을 교육하

셨던 나의 엄마도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남편을 잃고 가끔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고 나약함을 내보이실 때면 나의 엄마도 여자인 시구나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냥 당연히 엄마가 엄마지 여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안부전화 드린 오늘도 “나 죽어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잘해라” 라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이 책은 ‘여자인 엄마를 엄마 말씀대로 오늘 더 사랑해 드리자.’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궁금증은 삶과 죽음이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오 승 혁

[경기도 이천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 보았다. 그런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거나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아왔다. 그에 대한 해답은 수학문제처럼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답이 다를수도 있고 쉽게 풀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나 역시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십년간 고민하였고 되물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하였고 작가의 말처럼 죽는 순간까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충분

한 이유는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고 즐기기 위한 것 일수도 있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화의 비밀처럼 인류의 몇대 불가사의처럼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여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한때는 과학이란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으로 도저히 풀수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직 신만이 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비한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이유를 밝히기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길조라고 여기면 나쁜 사람들도 회개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한다. 편리한 전기를 생산해 주는 원자력, 터널 공사 등에 유용한 다이내마이트 등은 도움이 되지만 악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말인데 과학 분야에 대해 읽으면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나로서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대해 삽화없이 말로서만 설명한다는게 여간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에테르니 양자역학이니 하는 것은 상당히 난도가 있어 인상과, 추상과와 같은 미술의 사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을 논하지 않고서는 종교니 신비니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억지로라도 지면을 할애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은 어쩔 수가 없다. 자연계 전공자로서 인문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접하지 못해서인지 과학의 난도는 상당히며 대부분 전문지식이라 생각된다. 물론 즐기세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과학분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지적대화라하면 보통 인문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대화를 말한다. 과학을 전공하여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을라 치면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만 있거나 뉴스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이 고작이다. 오죽했으면 메르스가 창궐했을때 코에 바세린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소리가 나돌았겠는가?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얕은 지식이란 게 말이 안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대자연의 신비에 대해 특정 분야에 대해 어느정도 깊이있게 알수 있을지는 몰라도 넓게 알기는 힘들 것이다.

학창시절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1차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고 취업을 하려고 공부한 것인데 막상 취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별 쓸모가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느낀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제대로 못배운 사람들을 봤을때 혹은 중세시대를 다룬 책들을 보면 배우지 못하면 계몽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편하게 먹고 사는데 우리는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평생 모를 수 밖에 없고 죽어라 일만 할 것이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거나 나의 자손들에게 되물림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갖지 못한채 그냥 운명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도 말했듯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냥 숨을 쉴 수 있으니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죽음뒤에는 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삶과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으며 사후 세계를 일부 경험했다거나 영혼이 나의 육체로부터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데 역시도 내가 경험해보기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꿈을 꾸었는지 혹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허상을 마치 내가 경험 한 것처럼 느끼는 것인지도..... 이런 생각들을 하다보면 오늘 야구에서 누가 어느팀이 이겼네 혹은 연예인 누가 결혼하네 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보다 보다 건설적이고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처럼 깊은 사색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상 주고 받는 푸념보다는 훨씬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책이 나에게 지적대화를 위한 지식만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지적 사색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생각한다.

네가 먹는 식사, 네가 만나는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너의 오늘은 네가 지금까지 읽은 책의 결과이다.
-루이스 부르주아-

2015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고등부



앵무새 죽이기- 느껴지는 진실한 분노

《앵무새 죽이기》

김 수 빈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내가 17년 동안 책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읽기를 멈추었던 책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일 것이다. 또, 책을 읽다가 그렇게 미안한 감정이 든 것도 처음이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표지도 아니었고, (읽기 전에는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몰랐었다) 그냥 필독도서 목록에 적혀있는 평범한 소설인 줄 알았다. 그리고선 첫 장을 넘겼고, 그 후 마지막 장을 넘겨서 책을 덮을 때 나는 이전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은 1930년대 미국의 심각한 인종차별을 다룬 책인데, 조금 특이한 점은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에서의 시선이 어린 소녀라는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건의 일말을 낱알이 보여주는 시선이였다면 아마 난 너무 화가 나서 책을 찢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줄거리 부분은 흑인 톰의 무의미한 죽음이었다. 백인 여자인 마렐라는 톰을 유혹하려다 아버지에게 들켜자 곧바로 톰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난리를 치고, 이로 인해 법정까지 가게 된다. 이 불쌍한 톰의 변호를 바로 주인공 어린 소녀의 아버지, 애티커스가 맡게 되는데, 애티커스는 차분한 태도로 재판을 끝까지 이끌어어나가고 ‘자칭’ 피해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증거의 모순점들을 찾아내서 재판의 승리를 톰의 쪽으로 바꿔놓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어린 소녀의 관점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재판이 끊기고 다른 장면들이 나와서 나의 애간장을 녹게 만들기도 했지만 나는 정말 톰이 무죄를 받게 될 것임에 확신을 가졌었다. 왜냐하면 톰은 정말 아무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의 상상치도 못할 불공평한 현실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한들, 톰의 무죄가 아닌 판결은 그때 나의 머릿속으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톰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총을 맞고 죽는다. (당시 그 지역에서의 강간죄는 거의 사형과 맞먹는다고 한다.) 나는 정말로, 톰이 유죄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추스르지 못하고 책장을 몇 장 넘겼을 때,

나는 애티커스의 "툼은 마엘라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라는 대사를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책을 읽기 싫어졌다. 그 대사는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애초부터 흑인이 백인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아무리 그들의 증거가 모순되고 거짓 투성이여도? 나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차별들보다 인종차별은 나에게 덜 다가왔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고 나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노를 느꼈다. 평소에 내 것에만 치중한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건 잘못 된 거야'하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다. 덧붙이자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책'이라는 것의 역할을 제대로 안 것 같다. 간접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느껴졌다. 내가 앞서 말한 '진실한 분노'를 느꼈을 때, 나는 잠깐 톼이 되었던 것 같다. 책에서는 톼이 자신의 억울함을 독자들에게 토로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 억울함과 분노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느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국내의 외국인 거주자들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인종차별 문제에 그다지 큰 감흥은 없었다. 단지 "그래, 인종차별은 나쁘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라고, 마치 다른 세계의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알았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면 그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원래 내가 직접 겪어서 알아야 하는 것인데, 나는 17년 만에, 그것도 책으로 느꼈다. 아, 나는 정말 몰랐었다. 이토록 무식했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고 한 적이 없으면서 이토록 편하게 살았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고, 이렇게 무지에 살아가게 했던 앞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이 책은, 그리고 지금의 이 "진실한 분노"는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의 척도가 될 것이다. 단 한편의 책이 나를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놓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아마 이 깨달음은 이 책을 읽은, 또 읽을 모든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흔히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또, 책을 읽는 목적은 간접경험을 위해서라고 한다. 나는, 이 책으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했다. 그 전까지는 좋은 것, 환상적인 것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읽으려 했었는데, 이렇게 꼭 겪어봐야 하는 처절함과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주어서 처음으로 책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의 잘못을 잊는 인류에게는 그 이상의 희망 역시 없다고 덧붙이고 싶다.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질 한 희망의 새싹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알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 그리고 우리의 몫이다.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가슴이 기억하게 될, 말 그대로 "인생책"을 만들어준 '하퍼 리'씨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도가니’를 읽고

《도가니》

최영주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형반]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무엇보다 궁금해서였다. 이 책을 읽기 전 친구들은 '보지 마. 구역질나.'라며 읽을 것을 만류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반응이 내게는 더 큰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다. 이 책에서 강인호라는 교사는 무진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로 가게 되고, 어느 날 여자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 후에는 세탁실에서 고문당하고 있던 '연두'라는 아이를 보게 되고, 그녀를 구해준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부탁으로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다. 아이와 만남 후 어머니는 인권센터에 찾아가게 되고, 그 후 강인호와 인권센터의 서유진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상대의 성폭

행과 학대에 대해서 알게 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그들은 이 진실을 알리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고 노력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분노이다. '과연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뒤 다른 한편 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인생은 궁극적으로 말이야,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지? 돕는다는 건 결국 돕는 자의 자만심을 채우는 일일 뿐이야. 뱀뱌, 도와달라고 먼저 말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과거 강인호가 그의 친구에게 했던 말이다. 이 말을 읽으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테자뷰 되었고, 이는 곧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 만일 이 말처럼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남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다면 나도 학교에서 폭행당하고 있던 아이들을 모른 척 한 채 지내온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도움'에 대한 내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면 무언가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이 책에서 강인호가 끝내 무진을 떠나는 모습이 남아서 싸우던 서유진이라는 인물과 대비되어 인상 깊었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까닭은 내가 떠나는 그를 비난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강인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이라는 상황에 부딪혀 결국은 떠나게 된다. 나 또한 마음속에서는 서유진처럼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하지만 과

연 내가 현실에 처해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서유진의 "세상 같은 거 바꾸고 싶은 마음 다 접었어요. 난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맴돈다. 이 외에도 재판 속의 상황 역시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재판 속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진실을 위조하고 사회적인 강자의 편에서 있다. 우리가 흔히 '정의'를 위해 싸워야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일까?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하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또,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를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에 맞서 싸워야한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끝으로 책 이름인 '도가니'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도가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단단한 흙이나 흑연 따위로 우묵하게 만든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책의 작가와 이 책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감독은 도가니는 후자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해석해 보았다.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나는 우리의 사회가 이 그릇과도 같아 보였다. 이 책의 내용처럼,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은폐하는 모습이 마치 쇠붙이가 그릇 속에서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모습과도 같아 보였기 때문이

다. 우리는 그릇된 모습을 보고도 지나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비판한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허나 생각해보자. 우리는 진실을 위해 맞서 싸웠는가? 이 책은 나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였고,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해 주었다. 또한, 그릇, 즉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은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 사회는 더 개선되어 있지 않을까.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고

《눈먼 자들의 도시》

홍 소 연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1반]



이 이야기는 차를 몰고 가던 어느 남자 의사의 이유 모를 실명으로 시작된다. 이 증상은 단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옅는 터라 그 것을 모르고 그를 도왔던 많은 선한 사람들도 눈이 멀게 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정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들을 좁은 병동 안에 격리시켜 놓

는 것으로 끝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실명자가 매우 많아져 그 좁은 공간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된다. 그 중에는 가장 처음 눈이 먼 남자의 아내도 있었는데 사실 그녀는 눈이 멀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거짓말을 치고 들어 온 것이었다.

그 수용소(병원)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의사와 그의 아내를 포함한 여러 명은 눈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직하

게 지내려고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중 몇몇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한다. 특히 옆 병실에 새로 들어온 깡패들은 식량을 독점한 후 다른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시에만 나누어 주곤 했다. 거기다 심한 비인륜적인 행위까지 일삼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정직한 집단은 가까스로 깡패 대장을 죽이고 탈출하는데 세상을 보자마자 더욱 큰 절망에 빠졌다.

온 세상 사람들 모두 눈이 먼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의사 아내 한명만을 의지해 가며 연명해 나아간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힘들게 식량을 구해 와서 서로서로 나누어 먹던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되고 반대로 의사의 아내는 눈이 멀게 된다.

제목을 딱 보자마자 바로 빌려서 읽을 정도로 나를 사로잡은 책이다. 처음 가졌던 기대만큼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어 나갔던 건 같다.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역시나 ‘내가 지금 시력을 잃는다면?’ 이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 것을 보면 제대로 살아 갈 수 있을지 마저도 의문으로 남는다.

며칠 전에 실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이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살아 갈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이다. 하지만 그들은 참고 견뎠다. 서로의 팔과 다리,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끝까지 버텼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

이 더 많았다. 이게 얼마나 사람간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일까. 또 반대로는 의사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그녀처럼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나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상황이 지금 당장 들이닥치면 동정심이 들어 돌볼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이렇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녀의 인간성은 현실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다. 요즘 뉴스를 읽다보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을 돌본 것은 정말 대단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도 내 눈에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책임감 넘치는 분으로 보인다.

또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인간들의 신분제였다. 이 책에서도 결국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자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자가 깡패들, 후자가 정직한 집단이 되겠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책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고 하는게 정말 맞는 소리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약자를 무참히 괴롭히고 통제하는 인간의 본성이 잘 들어간 것도 같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약자를 배려하고 더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현실의 한 나라 안에서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나라는 곧 평화가 깨

지고 불화만이 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떠날 것이고 나라는 황폐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어찌면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는데 나아진게 별로 없는 지금을 비판하며 쓴 내용일지도 모르겠다. 다르게는 단순한 갈등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 착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악한 사람도 있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의 발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인상 깊게 마음속에 남은 구절이 있는데 대장 깡패가 죽고난 후 차기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대장이 되겠다고 한 후 위협용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알로 총을 쏠 때 나왔던 말이다.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가 총을 쏠 때마다 조금씩 권위를 잃어갔다.’라는 부분이었다. 지금은 그에게 물리적으로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사람들이 복종하지만 그 것은 한 때일 뿐이고 발사되는 총알 수에 반비례해 그의 힘도 점점 약해져 나중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꿈꾸는 듯한 달콤함에 취해 사람들을 막 대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어울려 지내야 한다. 영원한건 없으니 거만해지면 절대 안 된다. 왕의 옷을 입었다고 왕이 된 것은 아니듯이 자신의 착각에 넘어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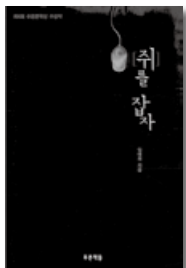


“세상은 혼자가 아니야”

《쥐를 잡자》

윤 수 빈

[장호원고등학교 3학년 3반]



책의 제목과 표지만 봐서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유독 눈길을 끌었던 책이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쥐를 갖게 된 주인공 주홍이와 그 역시 미혼모로 주홍을 낳았던 엄마. 이제 막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담임 선생님이 등장인물의 전부이다.

뱃속에 쥐가 자라고 있다고 그 쥐가 뱃속에서 스스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타까운 구조의 눈길을 보내는 주홍이. 유독 결벽증이 심한 엄마는 어느 날부터 인가 집 냉장고에 쥐가 들어가 살고 있다는 생각에 몇 개월 동안 냉장고 문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교실 뒤 주홍의 사물함에 쥐가 들어 있어서 계속 짹! 짹! 짹! 쥐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믿는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 수 있었다. 선생님과 엄마가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쥐의 존재에 대해 빨리 대처했다라면 주홍이가 낙태라는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과 그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슬펐다. 이 책 속의 선생님은 처음엔 의욕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이내 주홍이를 외면했으며 엄마 또한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된 딸을 외면했다. 선생님은 주홍이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고 엄마 보통의 엄마들처럼 행동했어야 했다. 깊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한 생명을 죽였다는 괴로움에 몸서리치던 주홍이는 끝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말았다. 미혼모의 존재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살아왔던 엄마였기에 그 시선 속에서 낙태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선택. 17살 주홍이의 자살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엄마와 선생님은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이 세상 많은 곳에서 점 점 더 많은 ‘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밖으로 나와서도 버려지고 있다. 우리 10대들에겐 “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엄마가 된다면 절대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도우려 노력할 것이다. 가엾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 책의 마지막 부분처럼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온 우주의 축복일 수 있기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시리도록 슬픈 우리 청소년들의 또 다른 자화상 같은 소설이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닌데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나의 편이 있는데.

또 다른 주홍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힘들었던 삶을 이겨내고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로

《방송인을 꿈꾸는 세계 청소년들의 롤모델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정 희 정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오프라 윈프리 하면 세계에서 영향력있는 인물,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책을 중학교 3학년 때 ‘방송인을 꿈꾸는 세계 청소년들의 롤모델’이라는 문장을 보고 처음 읽게 된 책이었는데 내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아 유익했던 책이었고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읽었던 책이었다.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읽어보면 어렸을 때와 청소년 시기에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그야말로 인생역전 드라마와 같았던 삶이었다. 오프라 윈프리는 탄생한 순간

부터 불행했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녀를 낳은 어머니는 어린 오프라 윈프리를 감싸 주기는커녕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였다. 윈프리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촌오빠의 친구들에게도 성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아기를 가지고 말았는데 문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상황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윈프리를 친아버지에게 맡겼는데 나는 여기서 정말 놀랐다. 친아버지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윈프리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 길러 지게했던 어머니와는 달리 윈프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가정교육도 엄격히 시켰다. 요즘 뉴스에서는 새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고 하는 일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 윈프리의 새어머니는 윈프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잘못을 했더라면 매를 들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교육했다는 점에서 나는 놀랐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때의 가난했던 윈프리가 아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줄 정도로 성장했다. 정말 어려웠던 과거를 어떻게해서 이겨낼 수 있었는지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었다. 그녀는 자신의 토크쇼에서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났고 한때에는 마약에도 중독되어있었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는 정말 방송인으로서 이야기 하기 힘든 말이었는데 윈프리는 얘기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사생아였다는 얘기도, 심지어는 마약중독이라는 말을 숨기고

살았을 것인데 윈프리는 그걸 다 얘기했고 사람들은 윈프리에게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내가 생각하는 윈프리의 장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 분위기에 따라 함께 웃고 울어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말에 잘 공감해준다는 말이다. 이렇게나 솔직하고 털털한 그녀를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책을 읽고 나는 아직까지 많은 삶이 남았지만 그 삶 중에서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별떡 일어나서 노력해서 나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힘들었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낸 오프라 윈프리의 지혜를 본받고 싶다.



발이 닿지 않는 아이

《발이 닿지 않는 아이》

박 하 은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6반]



처음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발이 닿지 않는 아이라는 제목과 책 표지에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높은 건물의 끝에 걸터앉은 남자아이 그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어두운 표지와 그림 속 코끝까지 밖에 보이지 않는 남자아이의 얼굴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처음에는 발이 닿지 않는 이라는 말이 주인공이 몸이 좀 불편하다는 뜻인가? 생각도 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책을 빌리고 책을 이틀도 안 돼서 다 읽었다. 시험 기간이었고 할 일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적지 않은 책을 거의 하루 반 만에 읽다니 책을 다 읽고 나서 나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 빨리 읽었는데도 아직 내가 책 속에 있는 듯한 기분에 ‘제대

로 된 책을 만났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엄마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까지 했다. 누구보다도 엄마에게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추천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책이 어른과 아이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발이 닿지 않는 아이> 는 나와 이름이 같아서 웬지 모르게 반가웠던 귀하은 작가의 장편소설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네 번이나 버려진 주인공이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겨우 다니는 학교에서 매일 같이 폭행과 폭언을 당해내면서도 아무와도 어울리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생님의 지갑에 손을 대며 느끼는 조그만 희열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현실에 없을 듯 하면서도 어디엔가 있고, 있을 법하면서도 막상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소년가장의 모습을 한 주인공은 누구보다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길에 혼자 서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교실의 평범한 그 누구보다 태연하고 무심하게 삶을 살아간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매번 등장하는 미성숙한 소년의 욕지거리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벌거벗은 소년에게 자꾸 ‘내 놓으라’며 욕박지르는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감히 쉽게 읽을 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이와 비슷한 삶이 실제로 본인이 살아온, 또 앞으로 살아갈 ‘내 이야기’ 일 소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저 가슴이 먹먹하면서 우울해졌다. 소년은 자신을 친구라 부르는 맨홀 인생에서 뚜껑이라도 열어보고자 나뭇 애써서 발버둥 쳐봤지만 엔딩에서의 소년에게는 여전히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자리는커녕 고

등학교 졸업장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이 어찌 보면 허무한 엔딩부분에서 나는 작가가 의도한 바가 뭔지 한참을 다시 읽으며 생각도 해보았다. 자신의 불행과 불운, 녹슨 수저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도 하늘로 솟구친 소망도 없이 사는 이 작은 소년이 처음으로 까치발 들어서 바깥이나 한 번 내다보려고 나뭇 애썼던 노력을 과연 어떤 영향이 있었고 앞으로 소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질지. 여러 방면으로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지만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았다. 꽤나 찼찼한 구석이 있는 엔딩을 끝으로 책을 덮고 나서 나는 그냥 꼭 소년이 확!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는 말아야 겠다고 생각을 다시 했다. 그러기에는 소년 스스로가 너무 무심해서, 외로워도 덜 외롭게 힘들어도 덜 힘들게 어른이 되어 갈 것 같기 때문이다. 소년은 세상에서 ‘동정’이라는 단어를, 감정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책의 중후반쯤 쪽방 촌에 어린 손자와 둘이 사는 할머니를 위해 꼭두새벽에 마트를 털어 쇼핑카트 한 대 만큼의 음식이며 생필품들을 몰래 놓아 주는 부분에서 소년 스스로도 그렇고 나도 그 모습에서 동정과 연민, 사랑을 느끼며 또 보았다. 인상 깊은 장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굳이 꼽으라면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감정표현에 서툴고 그중에서도 남을 향한 사랑이든가 관심의 표현이 가장 서툴던 소년이 스스로의 변화를 밀어내지 않고 나뭇의 방법으로 표현하려 하는 모습이 책에 완전히 몰입한 나는 사랑스럽기까지 했다. 엄마의 마음으로 소년을 보는 군중2처럼 칙칙한 책의 표지가 순간적으로 러블리한 연분

홍색이 되는 것 같았다. 책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나 풍부한 감정의 변화와 감상의 맥과 삶의 교훈을 주는 책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다. 어른이 되어서 삶이 힘들 때 꺼내 볼 수 있는 책이 생겼다는 건 너무나 값진 경험이다. 소년이 소년의 방식대로, 소년의 기준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도 끔찍해하던 동정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막 알게 됐다. 알 거 다 알아 닳고 닳은 내게도 순진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란 원래 변덕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니 오히려 희망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이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아름답지 않느냐고, 묻는 노래는 무척 아름답다. 그냥 그걸로 됐다. -발이 닿지 않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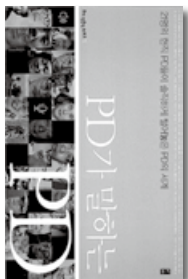


미래의 PD 최유림의 일기

《PD가 말하는 PD》

최 유 림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2(형)반]



내가 고른 이 책은 PD가 말하는 PD라는 책이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기획자라는 내 꿈과 제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추어서 주위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다. 춤 외에도 예체능분야를 칭찬받을 정도로 해왔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해온 주위사람과 달리 독설을 하는 우리엄마에게 내가 가수오디션을 나가보고 싶다는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다. 난 그날 엄마가 내게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엄마는 말하셨다. “넌 엄마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건 아니야. 네 엄마랑 아빠도 그런 사람중 하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엄마가 집에만 오면 tv보는 이유가

무엇인질 알고 있니? 그나마 tv를 보고 웃으면 잠시나마 그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이야.”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 난 삶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않았다. 딱히 공부할 때를 제외하고는 딱히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말과 함께 내 머리에 스친 두 문장이 있다. ‘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와 ‘난 세상을 억지로든, 무슨 이유로든 열심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어 그들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용기란 걸 주고 싶다’ 였다.(개인적으로 나는 tv방송을 보고나면 책을 읽고 난 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용기였던 것 같다.) 어렸을 적부터 세상을 바꿔보길 원했던 나의 사상과도 잘 맞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하나 둘 용기를 얻으면 그들의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PD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은지라 PD에 대한 정보라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옛날 학교 도서관을 둘러보다 발견한 직업모음집 책에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방송사 생활과 PD역할 선택과 분담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각 담당PD들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책에선 드라마, 다큐멘터리, 코미디, 라디오, 애니메이션,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PD를 볼 수 있었다. 사실 난 방송사에서 “너 이 프로그램 맡아”하면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PD로 입사 후 대학교 자유전공학부처럼 자신의 담당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꽤 신박하게 들려왔다.

난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마지막으로 드라마 분야에 제일 관심이 간다. 먼저, 엄마가 내 어릴 적부터 다큐멘터리를 정말 거의 다 보셨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큐멘터리 매니아였다. 내가 다큐멘터를 제작하면 혹시 엄마가 보고 기뻐하지 않을까? 라는 나름 효녀스러운 이유 때문이다.

드라마PD를 꿈꾸는 이유는 이 책에 의하면 드라마PD는 사람과 사람의 삶에 대해 다룬다고 제시되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들에 대해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고 표현해야할 줄 알아야한다고 적혀있다. 나는 드라마 PD가 된다면 공감이라는 컨셉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상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청소년시기를 보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기쁨이자 힐링 아닌가 싶다. 즉,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쁨. 이것이 공감에 대한 내 정의이다. 이런 공감이 잘 표현된 드라마는 미생인 것 같다.(주관적인 내 기준으로) 무튼, 공감이 이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삶에 용기를 주자는 나의 방송사상과 잘 맞는 것 같았고, 난 그런 공감적인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해주고싶다.

그리고 마지막, 애니메이션 PD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마음(기쁨과 힐링과 용기)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라는 즉,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말. 세상에 내

사상을 전달받은 아이들이 미래의 큰 사람이 되어 꼭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한 보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힘들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 '뿌듯하다'가 그들의 원동력이라고 생각된다. 엄마가 그랬다. 세상에 안 힘든 직업은 없다고 언젠가는 내가 그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나는, 공학인이다》

김 유 나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공학인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도전’이 두려워서 그 꿈을 품고만 있었다. 주변에서도 여성이 공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육아 때문에 버티기 힘들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 하셨다. 내

안에 존재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는 조심스럽게 꿈을 접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 접어놓았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라는 곳이 사회로 나가기 직전의 중요한 시점인지라 나의 미래가 어떨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했다. ‘나는, 공학인이다’를 읽기 전에는 내가 공학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지에 대해 걱정도 되고 불안했다. ‘당연히 나도 할 수 있지!’라고 안심하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섰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나는 공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책 표지의 붉은 색처럼 강렬하고 우아하게 여성 공학인으로서의 매력을 알려주셨다. 첫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컴퓨터공학 박사, 이민정 선배님이다. ‘보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을 고양하여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경제나 정치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에서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것이었다. 현재 기술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인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 분석하여 실용적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 물리학에 기반을 둔 컴퓨터 그래픽 분야 박사인 허수정 선배님은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예전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쓰인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 배움을 통해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 말들은 사회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쓴지를 알려준다. 사는 것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을 것

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든 기회는 노력으로 또는 기적으로 만난다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것이 언젠가 쓰인다고 믿으며, 이를 잊지 않고 고등학생만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다. 진로에 대해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마치 옆에서 토닥여주며 열심히 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셨다. 덕분에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나 재능이 있고 적성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에는 공학인으로서의 삶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에 남들의 시선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며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학인이다’에 등장하는 여성 공학인들처럼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의 일을 사랑하며 살 것이다.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한 지 오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5반]



이 책은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 했던 신경숙 작가의 걸작이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나에게 몇 번이고 읽기를 권유했던 책이기에 꼭 한 번 보기로 결심했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부터 ‘엄마’라는 평범하지만 긴 여운이 남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의 마음을 자극시켰다. 이 작품은 늘 곁에서 보살피주고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하던 그래서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던 엄마가 실종된 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가족들은 엄마의 흔적을 찾아가며 작가의 관점에서 잊고 있었던 혹은 깨닫지 못했었던 엄마의 이야기를 가슴 절절하게 그려낸다. 이 소설은 여느 소설과는 다르게 정해진 서술자 없이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엄마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설 속 엄마는 배움이 없었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 엄마는 작가인 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혹여나 자신이 딸에게 누가 될까봐 큰 딸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서 떨어진 딸은 어지러진 일상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손님’이 되어 버린다. 아들도 딸과 다르지 않게 엄마의 희생을 당연시 하며, 엄마에겐 받기만 했던 불효자 중 한명이었다. 이렇게 어머니로만, 희생하며 살아왔던 소설 속 엄마의 이야기는 나를 울렸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소설 속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였고, 남겨진 가족들은 일상 속에서 엄마를 떠올리며 살아간다는게 이 소설의 결말이다. 나는 소설의 마지막에 엄마가 딸에게 부탁한 장미묵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제일 작은 나라의 장미묵주는 당신이 처음으로 가족들이 아닌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소원이었다. 결국 손에 쥐어지지 못한 소원이지만, 큰딸은 그 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내가 두 번 정독한 책이다. 한 책을 두 번씩이나 읽었고,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 책은 처음 읽었을 때나 다시 한 번 읽었을 때나 여전히 나를 울리는 작품이다. 우리 엄마도 부모,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이고, 여인이었다. 난 소설 속의 가족들과 같이 마치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엄마’ 였던 것처럼 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던 것 같다. 나에게서는 그게 정말 당연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늦게 침대로 향하는 엄마, 밥 굶지 말라고 간단한 빵이라도 두 손에 꼭 쥐어 주셨던 엄마, 맞벌이를 하면서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하시던 나의 엄마, 돌이켜보면 ‘엄마의 삶이 있긴 한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엄마는 가족들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며 살고 있었다. 이 소설속의 가족들 중 아무도 엄마가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엄마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소설 속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생각해 본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소설 속 가족들과 별반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방 돌아오겠지,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안해하고, 엄마에게 못해 주었던 것만 자꾸 생각나 죄책감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가족들처럼 평범한 듯한 같은 일상을 살고 있겠지만 아마도 난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엄마가 생각나서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매우 힘들 것이다.

이 작품을 읽는 동안에 난 평소보다 엄마의 행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엄마’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은 항상 나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엄마라는 대상에 엄청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이 작

품은 내 주위에 엄마에 대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한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 읽는 다면, 아마 그 친구들도 엄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엄마와 나의 엄마, 모든 엄마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또 나에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신경숙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2015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중등부





빨간 구두에 담긴 사연

《한나의 선물》

표 성 식

[설봉중학교 2학년 2반]



이 책이 눈에 띄는 까닭은 책 표지에 놓여 있는 빨간 색 에나멜 구두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하얀 표지에 빨간색 구두 한 켤레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많은 상상을 하게 하였다.

천진한 어린 생명이 보낸 마지막 한 해의 일상이 그려지지만 칙칙하거나 울음 섞인 언어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한나, 아이의 병을 안 순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클로드와 머라이어 부부. 이 가족 모두가 갑작스럽게 닥쳐 온 죽음을 주어진 그대로 겸허하게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가오는 아이의 죽음을 옆에서 지키며, 아이의 엄마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는 책을 며칠에 걸쳐 나눠 읽으며 중간 중간 책을 덮고 다시 펼칠 때마다 표지에 있는 빨간 구두가 점점 크게 다가왔다. 나는 그 빨간 구두에 아이가 얼마 떼어보지 못한 발걸음 수를 헤아려 보고, 살아서 디터 보지 못한 장소들을 떠올려 보았다.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하다.

책에서 한나가 “어린 아이들도 죽어?”라는 말을 한다. 아무리 작은 아이지만, 얼마나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했는지 그 마음이 전해서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깜짝 놀라며, 마음이 아팠다. 나도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 열 번이 넘는 수술과 치료를 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수술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나도 그러면서 ‘죽는다는 건 어떤 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한나처럼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시한부이기에 한나는 정말 너무나 어렸다.

한나는 진정한 삶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한나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일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교훈의 울림을 준 그 아이의 삶은 삶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저 불평불만 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값지고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 한나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 그래서 한나는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 엄마가 쓴 이 책은 딸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딸 한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고 삶의 모든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엄마의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몸이 불편한 나에게서는 남들보다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알려준 소중한 보물이다.



우아하지 않은 거짓말

《우아한 거짓말》

김 나 은

[이천사동중학교 1학년 5반]



우아한 거짓말. ‘우아한’ 이라는 말과 ‘거짓말’ 이라는 말이 만나 한 아이를 죽였다. 그냥 친구 들끼리도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말이 그 아이에게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 잊지 못할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화연이는 몰랐던 것일까?

화연이에게 천지는 쉬운 친구였다. 가지고 놀 아도 자신은 피해보지 않고 적절히 놀다 버릴 수 있는 친구. 하지만 천지는 ‘싫어.’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화연이가 싫고 미웠지만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했지만 그 표현을 화연은 알아주지 못하였다. 자신의 생일파 티에 초대한 이유가 놀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2시까지 오라고 하면서도 천지에게만 3시에 오라고 하여 맛있

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찌꺼기만 주고는 가라고 한 것을 천지도 안다. 발버둥 쳤지만 나오지 못했고, 결국 나오기 위해 선택한 방법 ‘자살’. 그리고 그 죽음의 비밀을 풀기 위한 단서가 있는 화연과 반 친구들.

화연이 주도하고 천지를 놀려먹던 시간이 천지가 죽고 나서는 사라지고 화연의 악랄함과 비겁함으로 채워지는 광경을 알게 된 친구들은 화연의 비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럴수록 화연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은 늘어갔다. 화연은 이때 천지의 기분을 조금은 경험했을 것이다. 더럽고 창피함으로 둘러싸여 마치 쥐를 구석에 몰아놓고 고양이가 그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고양이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쉽게 접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 어쩌면 조금 자극적이어서 관심 갖는 주제의 숨김없는 모습을 화연과 천지의 갈등을 통해 비유적으로 ‘경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지가 화연에게 건넨 한마디, “말도 참 우아하게 하네.” 곁을 우아하게 감싸 마치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속 앙꼬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것이 천지의 국어 수행평가 발표가 죽음을 예고한 화연에게의 경고라는 것을 화연은 “당신은 예비살인자가 아닙니까?”라는 말에서 정곡을 푼 찔렀다. 그 발표이후 천지를 건드려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천지를 알아 차렸어야 했다. 그래서 천지는 죽었다. 그래도 엄마, 언니는 자살이지만 왜 유언이 없나 혹시 어디 유언이라도 적어놓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찾게 된다. 천지의 유언이 담긴 봉인실울. 실타래를 감아놓은 종이가 바로 천지가 남

긴 유서였다. 그 편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편지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천지의 답을 알았다. 그런데 만지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천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화연을 도와줘야 했다.

화연은 스스로 큰 상처를 받아 자기집 짜장면 그릇을 버리거나 안 좋은 소문을 유포했다.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연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 같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화연을 만지가 다시 바로 길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화연도 천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지가 나섰다. 어쩌면 화연도 마음이 여리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어린 소녀일 것이다. 그래서 만지가 화연만은 천지를 따라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다.

학교폭력, 왕따, 따돌림…….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너무 쉽게 입에 오고가는 것 같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냥 작은 싸움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폭력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우아한 거짓말’에서는 작은 감정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 그리고 죽음 까지 이어지게 된 학교폭력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도 천지 같은 학생이 있지는 않을까? 아무 잘못 없는 친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절대 우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천박한’ 거짓말쟁이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조잡한 말이 뭉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아하지 않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

《바보 빅터》

신 윤

[이천송정중학교 1학년 2반]



바보와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다.

바보, 그리고 천재. 바보는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반면에 천재는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단어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서로 정반대인 바보와 천재가 어떻게 얇고 얇은 종이 한 장 만큼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어리석던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 얇은 종이 한 장 만큼의 차이가 천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것을 좌우한다는 말일까?

빅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속담의 정체를 알려준다. 빅터는 누구나 인정하는 영락없는 바보다.

그는 때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말도 심하게 더듬는다.

컴퓨터의 전원을 켜라는 말(on)을 뜯어내라 (open)로 듣고 정말로 백만원도 넘는 컴퓨터를 뜯으려고 한 적도 있다.

심지어 중학교에서 치른 아이큐 테스트에서는 76만큼의 지수가 나왔다. 76이면 돌고래의 아이큐 지수와 비슷한 수치이니, 빅터가 보통 사람들보다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렇다. 빅터는 바보였다. 하지만 정말로 빅터가 바보였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질병이나 중후군이 아니다. 유전도 아니다. 빅터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큐 테스트지가 그의 지능을 낮은 범위에 속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바보였다.

책에서 나온 말을 인용하면, 콘래드 힐튼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쇠를 두들겨 말굽으로 만들면 10달러 50센트의 가치가 된다. 이것으로 못을 만들면 3,250 달러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시계의 부속품으로 만들면 250만 달러의 가치가 된다.’

이처럼 사람도 콘래드 힐튼이 예로 든 쇠막대기와 다를 것이 없다. 스스로를 계발이라는 망치로 어떻게 두들기냐에 따라 우리는 50센트만큼이 될 수도, 250달러만큼이 될 수도,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말굽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의 말굽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하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잘것없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빅터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고 바보만큼의 대우를 당연시했다. ‘왜냐하면 나는 바보이니까’, ‘그리고 나는 바보라서’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정말로 빅터는 바보였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무려 아이큐 176의 천재였다.

빅터의 담임선생님은 그를 당연히 바보라고 생각했고, 아무 의심 없이 176에서 1을 누락해 76이라고 적어 냈던 것이다. 단지 어이없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빅터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게 되었다.

간단하고 허무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 빅터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만약 빅터가 아이큐 테스트지와는 관계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더라면? 만약 빅터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더라면?

17년이 지난 그는 자신을 천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재만큼의 삶을 살게 되었다. 말 더듬는 버릇을 고쳤고, 멘사 회장이 되었다. 삶은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간단히 한순간에 달라졌다. 생각이 바뀌자 삶이 바뀐 것이다. 기억하자. 우리가 스스로를 말굽만큼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말굽밖에 될 수 없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어쩌면 그 얇은 종이 한 장 만큼의 차이는 본인이 만들어 낸 생각이 아닐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김 다 은

[이천양정여자중학교 2학년 1반]



왜 우리나라에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을 주어도 희망도, 끝도 없는 먼 나라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3만 원이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2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 광고를 보다가 아빠에게 질문을

던졌었다. 아빠께서는, “그곳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라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책 한권을 추천해 주셨다.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작가는 오지여행 작가로 알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여행에 관한 책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책은 모험을 즐기며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하는 여행서적이 아니었다. 작가가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활동을 하면서

보고, 겪고, 울었던 경험들을 생생하게 쓴 글로 나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과, 생각의 방향에 변화를 준 책이다.

무장한 탈레반이 거리를 활보하고, 지뢰로 팔과 다리를 잃은 아이들이 넘쳐나는 아프가니스탄, 1천3백만 명이 내전, 굶주림과 에이즈로 죽는 남부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전쟁으로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학살이 자행됐던 서부아프리카, 지진과 쓰나미로 폐허가 되었던 남아시아 등 지구 곳곳에서는 내가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작 열세 살 남짓, 내 동생의 나이에 소년병이 되어 경험하지 말아야 할 각종 잔인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가족의 빚 때문에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에 온종일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무리 세상이 외면하는 곳이라도 식량, 물, 기초의약품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전과 질병이 들끓는 한 가운데로 서슴지 않고 달려가는 구호활동가들을 보면서 위대함을 느꼈다. 그리고 선택권 없이 잔인한 환경에서 절망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원해서 절망의 지역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내가 특별해서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푸른 산과 나무, 주변에 넘쳐나는 풀과 꽃들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복지환경, 맑은 물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만 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어가는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발 벗고 도와줄 것이다. 작게 보면 우리나라지만 넓게 보면 지구라는 하나의 지구촌이며, 죽음의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챙겨야 할 이웃이다. 모두를 지원해주고 챙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 신이 있다면 아마도 희망과 전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고통의 지역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곳에 내가 살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작가는 한계와 틀의 새장 속 새가 되지 않기 위해, 지도 밖으로 행군한다고 하였다. 나는 인간이하의 고통을 받는 먼 나라의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나의 안락만을 생각했던 새장의 밖으로 나가는 행군을 시작한다. 그리고 아직 새장의 틀 안에 있을지 모르는 내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해주며 말하고 싶다.

“애들아, 우리 함께 지도 밖으로 행군해보지 않을까?”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이 준 혁

[이천사동중학교 1학년 2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정유선 교수님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힘들었던 점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정유선 교수님이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면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다 표현해서 책을 읽는 동안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유선 교수님과 꼭 닮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향해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교수님과 내 모습은 너무 비교가 되었다. 나는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더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짜증을 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정유선 교수님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서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꿈을 이뤘다. 이런 교수님의 모습은 참 달라 보였고 나도 교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유독 기억에 남는 말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유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보통’의 반대말은 ‘이상한’사람인데 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라는 정유선 교수님의 스승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이 구절을 읽고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에 와 닿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평등을 외치면서도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뜨끔했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정유선 교수님은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는데, 정유선 교수님이 신문 인터뷰를 하시고 신문사에 사진을 드렸는데, 신문사에서 사진을 보고 좀 더 장애인 같은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왜 장애인들은 꼭 남들과 차별되고 괴상하게 보여야 하는 사진을 써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예쁜 사진이 신문에 실리기를 원할 텐데 신문기자는 장애인에 대한 기사이니까

좀 더 장애인다운 사진을 원하는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았다.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간절히 원하면 결국 꼭 이뤄진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렴!”이라는 말이었다. 이 예로 정유선 교수님이 중학생 때 체육수행평가를 보는데 뇌성마비를 가진 교수님께서는 너무 힘든 수행평가였다. 하지만 그럴 때 교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교수님의 수행평가는 성공적이었다.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이 힘들어서 쉽게 포기한다. 나 또한 그랬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유선 선생님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런 모습이 책을 읽는 내내 대단했다. 어려움이 늘 있었는데도 말이다. 선생님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한 힘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아마도 그건 자신이 장애를 가졌지만 할 수 있다는 오기와 주변에서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믿어주시던 부모님과 선생님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내게도 늘 잔소리를 해주고 격하게 걱정을 해주는 엄마가 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임을 새삼 깨달았다.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 정유선 교수님처럼 나를 믿고 걱정해주고 지원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늘 들었던 평범하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번데기 프로젝트>를 읽고

《번데기 프로젝트》

이 솔

[이천송정중학교 3학년 6반]



‘번데기 프로젝트’. 독특한 제목에 별 생각 없이 집어든 책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톡 톡 튀는 제목에 신기하기는 했지만, 책의 내용은 무엇일지 짐작할 수 없었다. 뒷표지에 적힌 ‘소설에 일생일대의 승부를 걸다!’ 라는 문구를 보고 번데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소설에 관련된 프로젝트겠지, 하는 추측만 해볼 뿐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소설로 대학교에 가고, 소설 쓰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어 하는 정수선이라는 여고생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았다. 아빠가 보증을 서준 외삼촌의 청바지 사업이 망해서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에 6시간씩 부모님의 삼겹살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

에서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소설 쓰기가 대학교에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이, 목표가, 꿈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던 정수선은 혼자서 시간을 쪼개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허무식이라는 문학 선생님을 만난다. 허무식 선생님의 도움으로 많은 백일장에 나가고, 대회에 응모해온 끝에 정수선은 책까지 출판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간다.

나는 이 책에서 정수선이 소설 쓸 시간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일기를 쓰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매일 시간일기를 쓰고 자신이 시간대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여 쓸 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소설 쓰는 데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정수선과 그 의지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포기하는 대신 시간일기 동호회까지 나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 멋있어 보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책 제목인 ‘번데기 프로젝트’의 뜻을 어렵게 알 것 같았다. 쭈글쭈글한 번데기 같은 청소년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하지만 그 번데기는 곧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나비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아직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려 한다. 꿈이 없다고 자책하는 친구들에

게,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는 친구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 노력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없으니 포기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번데기’들이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한 수 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3학년 3반]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치즈?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쥐들이 나오는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책의 겉표지에 ‘지구촌 최대의 베스트셀러’라고 적혀있는 것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책의 1장은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고등학교 동창들이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에 모여 각자의 변화된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점점 변화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고, 동창 중 한 명인 마이클이 자신의 시각과 직장 동료들의 시각까지 변하게 해준 짧고 재미있는 우화를 들려주며 2장을 시작한다.

마이클의 이야기에는 두 마리의 생쥐인 스니프와 스커리, 두 꼬

마인간인 햄과 허가 등장한다. 이들은 매일 미로 속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치즈를 찾아 나섰다. 미로 속에는 맛있는 치즈가 잔뜩 있는 창고도 있었지만 그만큼 막다른 길과 텅 빈 창고도 많았다. 매일 치즈를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그 넷은 자신들이 원하는 치즈가 있는 치즈창고를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치즈창고를 발견했다는 기쁨에 매일 치즈 창고로 향했다. 이 기쁨 속에서도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변화 때문에 스니프와 스커리는 항상 치즈의 상태와 변화들을 관찰했다. 그러나 햄과 허는 치즈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집도 치즈창고 근처로 옮기고 점점 게으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들이 치즈창고로 갔을 때 치즈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예상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 스니프와 스커리는 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새 치즈창고를 찾았다. 그러나 햄과 허는 치즈가 사라졌다는 충격에 휩싸여 화만 냈고,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뒤늦게 허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햄에게 새 치즈를 찾으러 미로 속으로 가자고 계속 권했으나, 결국 허 혼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로 속으로 향했고 가는 길마다 햄이 자신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벽에 글을 남겼다. 드디어 허도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새 치즈창고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허는 옛날처럼 행동하지 않고 스니프와 스커리처럼 치즈의 상태를 살피며 변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 현 미로 속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마이클의 이야기는 끝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동창들이 담소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마이클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책은 끝난다.

이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하면 정말 짧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많다. 작은 변화라도 주의를 기울이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즐겨야 새 치즈를 얻을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이 치즈가 목표(?) 원하는 것(?) 인 것 같았다. 그러나 책 뒤의 케네스 블랜차드 박사의 말을 읽어보니 치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직업, 인간관계, 재물, 취미활동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은 모두에게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안고 산다고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패를 할 것만 같더라도 먼저 시도부터 해보고 만약,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보면 되는데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성공을 못하게 된다. 그러다 또 후회를 반복하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인 두려움은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러니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미래가 달라진다.

이 책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또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나도 이제부터는 작은 변화라도 자세히 살피고 그 변화를 즐기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주는 이 책은 내 인생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다.



죽음을 결심하고 얻은 ‘또 다른 오늘’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신 진 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3학년 7반]



좋아했던 드라마 '미생'에 나왔다는 문구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바쁘다는 핑계로 곧장 책장에 꽂아두고 잊었던 책이다.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부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부담감까지 겹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다. 방학을 하고 나서도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여유 없는 매일매일을 지내다가, 책장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마침 앞으로는 마냥 우울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던 참이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든 강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이 책은 작

가 본인의 스물아홉 생일부터 서른 생일까지, 1년 동안의 삶을 담은 에세이이자 소설이다. 굳은 결심을 하고 스스로를 바꾼 사람이 직접 들려주는 얘기는 나에게 와 닿아서 좋은 기운을 줄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게 생겼다. 생생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다.

이 책은 외롭고 무기력하게 세 평짜리 원룸에서 과전사원 일을 하며 살아가는 아마리가 스물아홉 생일날에 TV에 나온 라스베이거스에서 스물아홉의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보낸 뒤 죽기로 결심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하루를 위해 1년 동안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마리는 1년간 준비한 것을 모두 발휘하여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마지막 밤에 카지노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일주일간의 화려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준비해 온 강력 수면제를 버리고 또 다른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한 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뚜렷한 목표도 없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성과를 바라 왔다. 그래서 늘 사소한 일에도 금방 포기하고, 도전하기를 겁내고, 노력하지 않아서 성과가 없는 건데도 우울해하고는 했다. 이 책은 그런 나태한 생각을 계속 쿡쿡 찔렀다. '세상은 널 돌봐줄 의무가 없다', '꿈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 아니라 안정이다', '주저할 때가 바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 같은 소재목들이 그랬다. 그리고 나와 많이 닮았다고 느꼈던 이야기 초반의 아마리가 변화해가는 모습도 그랬다. 열등감 덩어리에, 무기력하고 자신감도 없는 요즘의 나와 닮은 아마리가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도전을 하고, 스스로 비교하며 슬퍼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상대방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나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아마리가 지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라스베이거스라는 뚜렷한 목표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일 것이다. 나도 당장의 일만 얼렁뚱땅 넘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크고 단단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정표 삼아서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주말마다 누드 크로키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마리가 깨달음을 얻은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아마리는 누드 모델 일에 여유가 생긴 뒤로 스스로 거울을 보며 뚱뚱하다며 스스로 싫어했던 몸에 관심을 가지고 포즈도 연구했고,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아마리는 학생들마다 자신을 그린 모습이 다른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나와 똑같은 느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냐며 억울해 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도 알게 된다. 나도 혼자만 힘들고 외롭다고 느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내 기분을 알지 못하는지, 화가 나고 더 외로워지기도 했었다. 아마리가 그림 속에서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처럼, 나도 나를 완벽히 알지 못한다. 그런 나를 남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억지인 것이다. 또,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열등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도 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무섭다. 내가 자신감 넘치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만큼,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절망하지 말고 채워가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곧 아마리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고민과 아마리의 고민이 비슷했고, 아마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발전해가는 아마리를 보면서 또 자괴감에 빠질 뻔 했지만, 내용 중간 중간에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에 위태했던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 아마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강해지는 만큼 나도 용기를 얻으며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내일이 막막하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해하기만 했던 내가, 기운을 차려보려 노력하고, 내가 겁내는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었다. 나를 계속 휘두르던 열등감을 없애자 책에서 말하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나만의 잣대'를 가질 수 있었다. 아마리는 서른 살의 첫 날에 '또 다른 오늘'을 얻었고, 나도 이 책을 읽고 완전히 다른 오늘을 얻을 수 있었다.



상상의 상대성 이론

《청소년을 위한 상대성 이론》

장 호 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알 듯 말 듯 한 미묘한 느낌이 들어서 항상 답답하였다. 그러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접하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한 주인공 남자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가족을 두고 우주로 떠나는 내용이다. 그가 특수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딸의 나이가 남자, 아버지의 나이보다 2~3배는 많아 죽음을 지켜보아야했다. 특수 상대성 원리로 그가 돌아온 것은 알겠으나 특수 상대성 원리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청소년을 위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내용은 대부분 가상의 실험으로 전개가 이루어졌다. 원래 상상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게 알맞은 책이었다. 그러다가 가끔씩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면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씩 연결해나갔다. 특히 특수상대성과 일반상대성을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는데 가속 좌표계로 보느냐 관성 좌표계로 보느냐에 차이점이 있었다.

한 실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구를 우주 정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사람이 정거장에서 있고 B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다음 정거장을 향해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주선에서 10초 동안 빛이 위 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우주선에서는 일직선으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는 빛이 내려갈 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사선의 모습일 것이다. 위로 갈 때도 사선이긴 마찬가지이다. 이때 우주 정거장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빛이 움직이는 길이가 길어지고 안에서는 밖에 보다는 짧은 길이가 된다. 즉, 지구에서는 우주선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간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 인해 두 부녀가 만났을 때는 아빠가 딸보다 나이가 더 젊게 된 것이다. 동시지만 동시가 아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사실들에 대해 배워 영화 이외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쾌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궁금한 내용들을 목적으로 읽게 되었는데 읽다보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도 배울 수 있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차원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차원에 관한 문제들이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고 여러 가지 식들이 나와 당황하였지만 다시 읽고 나니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을 나타내어 규칙을 보여주었는데 1차원 세계에서는 o에서 p까지의 거리는 $x = \sqrt{x^2}$ 이고 2차원 세계에서는 $\sqrt{x^2 + y^2}$ (x와 y는 o에서 p로 갈 때 직각으로 갈 때의 두 직선)이다. 마찬가지로 3차원은 $\sqrt{x^2 + y^2 + z^2}$ 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같은 규칙을 가지고 $\sqrt{x^2 + y^2 + z^2 + w^2}$ 의식을 가질 것이다. 이 때 4차원의 세계란 시공-시간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세웠다. 이 사실들을 알고 나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계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원에 관한 시공간의 존재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알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다. 시공간에서 중력은 필수적이다. 중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빛을 휘게 만든다. 그래서 빛이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휘어서 지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간 공간도 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지구가 원이어도 공간이 휘어서 우리가 직선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아직은 차원에 대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력에 의한 휘어짐을 통해 새로운 것들 말고도 궁금증이 더 부풀어졌다. 과연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말이 혼합된 것인지 한 가지 사실이 맞는 것인지 등 더 배우고 싶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과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공간을 간다면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과거의 지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의 4대 불가사의를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비밀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상상을 할수록 기대에 부풀어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를 통해 물리학에 대해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잘못된 실험이나 사실들을 배워가며 다른 면에서의 현상들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좋은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새 벗을 얻는 것 같고,
전에 정독한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 스미드 -

2015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초등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떡보만세》

오 한 서

[아미초등학교 4학년 1반]



예전에 떡을 좋아해서 떡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눈이 애꾸눈이었다. 나는 떡보가 정말 웃기게 생긴 것 같아 처음에 많이 웃었다. 떡보는 어느 날 중국의 사신과 지혜를 겨루는 것에서 이기면 원하는 것

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떡을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참가하기로 했다. 나는 떡보가 생김과 다르게 똑똑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떡보는 중국 사신과 만나게 되었다. 사신이 손가락을 세 개를 펴면서 나는 삼강을 안다라고 했더니 떡보는 그 것을 보고 떡을 몇 개 먹었냐고 묻는지 알고 떡을 5개 먹었다라는 뜻으로 다섯손가락을 폈다. 나는 그 때 역시 떡보는 똑똑하지는 않구나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신은 그것을 유식하게 오류를 안다고 하는 줄 알고

포기하고 물러났다. 그래서 떡보는 떡을 실컷 먹었다. 나는 무식하게 대답을 한 떡보의 말을 중국 사신이 유식하게 받아드린 것이 정말 웃겼다. 그런데 중국의 사신도 참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인 것 같다. 나라면 떡보가 다섯 손가락을 폈을 때 인간의 도리인 5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었을 것 같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떡보는 그냥 운이었는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지혜를 늘려 가야 겠다.



행복한 헤린에게

《헤린이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

임 은 수

[증포초등학교 5학년 6반]



행복한 헤린에게

헤린아, 안녕? 나는 이천에 사는 5학년 임은수야.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읽어보게 되었어. 하지만 그 제목이 뒷부분에 갈수록 이해가 되더라. 나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한 것은

가기 싫은 '아메리칸 시티'에 다닌다는 것이야. 나는 3학년 때 지겨운 피아노를 다녔는데, 엄마를 설득해서 그만 둘 수 있었어. 그 때는 하루하루가 느리게 가기를 원했었는데, 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엄마께서 허락도 해주시지 않으니까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소원이 이루어 졌을 때 나도 너처럼 기뻐했어. 3학년 때가 기억났었거든! 처음에는 당하시는 엄마가 정말

고소했어.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시고 헤매시는 너희 엄마를 보니 까 점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 그 후로 조금씩 엄마를 응원했어. 그리고 헤린이 너랑 엄마랑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자 모든 일이 풀린 것 같아서 기뻐했어. 하지만 아빠께서 오시는 날에도 엄마의 몸이 변하지 않자 걱정했는데.. 그 때 온 50일 소원 쿠폰 문자가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 나도 앞으로 너 같이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 친구 선민이처럼 잘 대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내게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고맙게 느껴졌어. 앞으로도 그렇게 화목한 가정 이 계속되길 바라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안녕~

- 은수가 -



이사가는 날

《산들마을이 최고야!》

이 재 준

[이천남초등학교 1학년 2반]



곰곰이네 가족이 이삿짐을 꾸리고 있어요.
아빠는 이사를 가는게 싫은가봐요.

“여보, 꼭 이사를 가야겠소? 난 여기가 좋은데……”

엄마가 말하었어요.

“우리 마을은 비가 안와서 먹을게 없는 걸요.”

곰곰이도 거들었어요.

“그래요. 아빠, 어서 이사를 가요.”

곰곰이 아빠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났어요.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로 이사를 간 곳은 아랫마을 산들마을이었어요.

나도 곰곰이 가족처럼 몇 달 후에 이사를 가요.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심부름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사를 가서 이층

침대를 갖고 싶기 때문이죠. 얼른 동생이랑 침대에서 놀기도 하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어요.

그런데 곰곰이 아빠는 새로 이사한 마을이 낯설기만 한가봐요.

“친한 이웃도 없고, 아늑한 동굴도 없어.”

곰곰이 아빠는 벌써부터 곰마루 마을이 그리워졌나봐요. 나도 이사를 가면 우리가 살던 집이 그리울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손이 닿지 않을 때 버튼을 눌러주던 우리 앞집 아줌마가 그리울 거예요. 또 동생이랑 신나게 그네를 탔던 놀이터도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 간 집도 오래 살다보면 옛날에 살던 집이 그리워 않을 거예요. 새로 이사 간 집에 내 방이 어디에 있을지, 집이 얼마나 넓을지, 새로운 놀이터엔 어떤 그네가 있을지, 집 앞에 있다는 분수는 얼마나 시원할지 생각하면 어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아빠도 얼른 새로운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 수비대

《쓰레기 행성을 구하라》

김 연 후

[마장초등학교 1학년 1반]



내가 '쓰레기 행성을 구하라' 라는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나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데 잘 버린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서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또비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더러운 쓰레기를 땅에 묻어 그 위에 식물을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식물은 살지 못했다.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들도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또비 같았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때문에 자연과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들이 아파하고

죽어간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쓰레기를 태워 버려 연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을 아프게도 했다. 쓰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파했다.

난 또비를 보고 절대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난 우리 집 주변 쓰레기를 동생이랑 같이 주워 본적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울 것이다. 그럼 나도 또비처럼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또비와 친구가 되어 쓰레기 행성을 함께 구하고 싶다.



안돼 데이빗

《안돼 데이빗》

오 호 은

[이천남초등학교 2학년 3반]



책을 읽으며 너무 웃겼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책 속의 주인공은 데이빗이다. 정말 엄청난 장난꾸러기이다. 내 동생보다 더 장난꾸러기 같다. 데이빗은 내 동생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진흙탕에서 뒹굴다 집

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면서 물을 마구 넘치게 했다. 그리고는 팬티도 입지 않고 발가 벗고 밖으로 뛰쳐 나가기도 하는 모습이 정말 웃겼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싶고 내 동생 같기도 했다.

어떨 때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두들기고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잘 때 쿵쾅거렸다. 쿳구멍을 마구 후비적 대고, 방은 엄청 어지럽게 하고 치우지 않는 모습들이 저러다 엄마

한테 많이 혼날 텐데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데이빗이 참 웃기다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야구를 하고 화분을 박살내고 했지만 데이빗은 아가처럼 줄리자 엄마 품에 포옥 안겨서 잠이 들었다. 그런 데이빗을 보며 지금의 내 동생 현우를 보는 것 같았다. 어떤 모습은 내 모습 같기도 했다. 나도 현우도 사실은 함께 장난꾸러기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데이빗의 행동 중에 어떤 것은 해보고 싶기도 했다. 조금 부끄럽고 지금의 나라면 못할 행동들이지만 데이빗처럼 자유롭게 해보면 어떨까 궁금하다.

내 동생과 데이빗은 같은 마음일까?

동생의 행동이 이해가 안될 때가 많지만 데이빗도 결국 아기 같았던 것처럼 우리 동생도 아직은 아기니까 어리니까 더 이해해주어야겠다.



마음의 눈

《안내견 탄실이》

박 하 윤

[아미초등학교 6학년 6반]



이 책은 화가가 꿈이었던 시각장애인 예나와 안내견 탄실이가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내용이다.

예나는 시력을 잃고 화가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지만 친구 탄실이와 함께 마라톤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를 잃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은 예나를 보며 잃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잃은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마음먹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아도 다른 길을 찾아가는 예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평

소에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이 있어서 장애에 대한 불편함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두려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안내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 책에 한 부분에서 안내견인 탄실이를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이 부분을 읽고 사람들이 안내견은 털이 날리는 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 자신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존재일 것이다. 안내견들에 대한 편견을 깨 주었으면 좋겠다.

안내견 탄실이는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눈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해주고 안내견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책이다.



형광고양이에게

《형광고양이》

황 다 윤

[아미초등학교 3학년 2반]



형광고양이에게...

고양이야, 안녕?

나는 너의 이야기를 읽은 이천 아미초등학교 3학년 2반 황다윤이라고 해.

처음에 내가 다른 고양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손가락질당하고 다른 고양이들

도 너를 많이 싫어했잖아?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참 자랑스러웠어. 만약 나라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겨낼 수 없었을 텐데 너는 그것을 씩씩하게 이겨냈잖아. 결국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너를 믿어주어서 나도 무척 기뻐했어. 나도 너처럼 의지를 갖고 싶단다. 너처럼 손가락질 당할 때에도 꾹꾹하게 이겨내고 싶어. 그런데 나는 평소에 그게 잘 안 돼.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포

기할 때가 많단다. 하지만 넌 그렇지 않았잖아. 난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었잖아. 난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단다. 나도 예전에 엄마께 시험 100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이라고 오해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었어. 나중에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그 안 좋았던 기억은 참 오래 가더라. 너도 그랬겠지? 너의 마음을 생각하니 나도 마음이 아팠어.

우리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꾹꾹하게 이겨내는 씩씩한 마음 간직하자.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을까? 내가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힘들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이겨낼테니 너도 나를 계속해서 응원해줘. 나도 너를 잊지않고 응원할게. 우리 서로 응원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2015년 9월 24일

다윤이가



잔소리 해방의 날을 읽고

《잔소리 해방의 날》

김 초 은

[아미초등학교 3학년 2반]



잔소리 해방이 됐다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양치질도 안하고, 자두 찜도 실컷 먹고, 학교도 안가고, 설거지 당번인데도 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집이 뒤죽박죽이 될 것 같다.

만약 우리 집에 잔소리 해방을 한 달 동안 한다면 나는 학교도 안 가고, 방 청소도 안하고, 학원도 안가고, 숙제도 안하고, 수영레슨도 안 갈 것이다. 그런다면 집이 돼지우리 같이 되겠지만 뭐, 나야 좋을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정말 싫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심심할 것 같다. 솔직히 친구들도 다들 바쁠 테고, 같이 놀 친구가 없을 것 같다. 잔소리 해방되는 것은 좋은데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백만 후디스 운동

《검은 후드티 소년》

최 예 은

[이천남초등학교 6학년 1반]



이 책을 읽고 나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마틴은 흑인이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막 경찰이 된 짐머만에 총에 맞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에 그치지 않고 죄 없는 마틴을 죽인 짐머만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틴 사건을 담당하던 베어 경위는 증거를 없애고 위조 하였다.

마틴에게는 친동생 같은 아이 제이가 있었다. 제이는 한국에서 갓난아기 때 입양을 온 아이였다. 제이는 마틴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였고, 마틴을 죽인 짐머만이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 제이는 자신을 괴롭혔던 백인 남자아이 하비, 씩씩하고 용감한 흑인 여

자아이 니콜과 베어 경위가 있는 샌포드 경찰서까지 갔다. 제이는 탄원서까지 써서 냈지만 제이의 탄원서는 쓰레기통에 쳐 박혀졌다. 하지만 제이는 포기하지 않고 목격자를 찾아나섰다. 목격자를 찾다가 할머니를 만났다. 제이는 할머니에게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할머니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당시 짐머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911 전화상담원 수잔 베이커도 만났다. 하지만 수잔 베이커도 기다리라는 말 외엔 진실을 외면하여 버렸다.

한편 마틴의 아빠 트레이시는 짐머만이 생방송 tv 토크쇼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 짐머만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며 정당방위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트레이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짐머만이 있는 곳까지 갔다. 결국 트레이시는 짐머만을 경호하던 사람에게 총을 맞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제이는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병원에서 니콜의 아빠는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말렸다. 만약 이대로 짐머만을 죽인다면 그들도 똑같이 누군가를 죽이려 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장투쟁 대신 피켓을 들고 마틴이 입었던 검은 후드티를 입고 시위를 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며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마틴의 사건은 재조사 되었고 샌포드 경찰서장은 해임 되었다. 베어 경위는 증거인멸 및 위조죄로 체포 되었고 짐머만은 2급 살인죄로 구속되었다.

이 책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즈음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나도 흑인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이 책을 읽고 흑인을 무서워하던 나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틴이 죽기 전 제이에게 한 말이 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마음 이에도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 말 뜻은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그들도 복수를 할 것이니까 내가 한 발 물러서라는 뜻이다. 나도 누군가와 싸우고 할 때가 있겠지만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아야겠다.



“엄마의 팬클럽”을 읽고

《엄마의 팬클럽》

박 진 서

[이천남초등학교 4학년 3반]



요즘 동화책보다는 소설을 많이 보게 된다. 어릴 적에 많이 보았던 동화책들도 좋지 않지만 이야기가 좀 더 많고 재미있는 소설책에 끌리게 된다. 그 때 엄마가 “엄마의 팬클럽”이라는 책을 내손에 쥐어 주었다. 내용은 중학생인 딸과 엑스트라 전문 배우 엄마의 이야기였다.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 딸은 엑스트라 전문 배우

인 엄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딸에게 일하느라 관심도 없던 엄마는 딸과의 거리만 멀어져 간다. 여러 갈등을 겪는 과정에 드디어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황진이’라는 연극에 주인공을 하게 된다. 솔직히 그 장면에서 딸에게는 무심하지만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엄마는 우

리를 위해서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포기하시고 우리 남매를 위해 집에 계신다. 가끔 우리를 알뜰히 살피시는 엄마가 고마우면서도 일하시는 엄마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주인공의 엄마는 기쁨도 잠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때문에 딸은 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엄마는 절망의 끝 자락에 서게 된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모든 것을 쉽게 포기 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인공 엄마는 ‘음주운전’이라는 가운을 벗고 다시 힘차게 일어난다. 결국 엄마는 최고의 배우가 되고 주인공 딸과의 관계도 다시 가까워지는 이야기이다.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절망적인 끝자락에 다다르게 된다 하여도 열심히 꿈을 향해 노력하고 전진하다보면 언젠가는 희망이라는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읽으면서 코끝이 문득문득 시큰 할 때도 있었지만 나도 모든 일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즐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내동생 싸게 팔아요’를 읽고

《내동생 싸게 팔아요》

임 지 빈

[이천송정초등학교 3학년 6반]



나에게는 두 살 많은 멋진 형아가 있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듬직한, 거기애다 나에게 없는 쌍꺼풀까지 있어서 내 눈에는 잘생겨 보이기까지 한다.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쁜 여자 동생이 ‘오빠~ 오빠’ 하고 부르면서 원하는 걸 다 해줄텐데…… 또 남동생

이면 나도 우리 형아처럼 멋진 형이 되어줄 수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동생을 낳아주지 않는 걸까? 속상하다.

뭐든지 다 파는 시장으로 짱짱이가 동생을 팔러간다. 나에게는 없는 부러운 동생을 무엇 때문에 팔러 가는지 이해가 잘 안됐다. 그 이유가 알미운 동생이 짱짱이한테 대들고 나쁜 말도 하고 고자질쟁이에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징징 짜기나 하고, 엄마한테 일

러서 야단맞게 하기 때문이다. 나도 형에게 알미운 동생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다. 가끔 내가 형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까불어도 참아주는 형아, 그럴 때마다 엄마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형이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내가 욕심꾸러기 먹보는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우리 형아가 먹는 걸 무지 좋아하기 때문이다.

짱짱이에게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동생을 거저 줘도 싫다는 순이의 말에 짱짱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잘 때도 이쁘고 엄마 놀이할 때 아기 시키면 잘하고 왕자님에 심부름까지 잘하는 동생이 좋아서 거저 주기가 아깝고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형아가 놀 친구가 없을 때는 자전거도 같이 타고 축구도 하고, 밤에 무서울 때는 함께 잠도 자고, 형과 내가 둘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형도 나를 팔지 않을 것 같다. 가끔은 내 말이 맞다고 뽀뽀 우기기나 하고 말도 안 들어서 같이 놀아주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동생이라고 다 받아주고 잘 챙겨준 형아가 고맙다. 그런 형아에게 앞으로는 착한 동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고 잘 해야겠다.



방귀공주와 99번째 왕자

《방귀공주의 비밀》

이 도 은

[마장초등학교 2학년 1반]



사람들은 모두 방귀를 똥다. 나도 방귀를 똥다. 방귀공주의 비밀이라는 책은 방귀를 똥는 공주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는 임금하고 공주하고 공주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온다. 임금님한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공주가 방귀를 심하게 똥어서다. 그래서 임금님은 걱정을 하였다. 만약 내가 임금이었다면 그냥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금님은 걱정이 많은가보다.

공주는 99번째 결혼을 하는데 방귀만 똥면 왕자들은 도망만 다녔다. 공주는 숲속에서 방귀를 똥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있었다. 임금님은 그 사람을 불러 공주의 방귀병을 고쳐달라고 하였다.

공주의 병을 고쳐준 사람은 공주의 식탁을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켜보고 알아내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방귀를 왜 똥는지 까닭을 알아내려고 계속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많이 먹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방귀냄새가 나지 않을까 궁금하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엄마에게 물어 봐야겠다.



소중한 나의 나라와 가족

《북소리》

박 지 연

[이천송정초등학교 5학년 6반]



이 책은 제목이 북소리이다.

제목이 북소리여서 ‘음악과 관련된 책일까? 난 장구소리가 더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첫 장을 넘겨보니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전쟁과, 그 속에서의 진한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작가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다. 첫째,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과 둘째, 가족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대마도가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일본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실어놓았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힘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잘 만든다. 반도체는 세계 1위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같은 분, 박지성 오빠, 김연아 언니 같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K-POP처럼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멋진 문화들이 많이 나와 주면 좋겠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생생히 나의 꿈을 꾸고 이뤄나가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다. 그러는 것이 작게 보면 나를 위한 일이지만 멀리 보면 나라를 위한 일일 것 같아서다. 그리고 순돌이처럼 가족이란 단어의 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순돌이는 원래 가족을 왜구에게 모두 잃었지만 유관어르신과 어르신들의 가족과 함께 살며 어르신들의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순돌이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원래 가족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다. 순돌이처럼 나에게도 가족은 매우 필요하고, 있어서 행복한 존재인데 공기처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안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소중한 가족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요즘 들어 부모님의 말씀들이 잔소리 같고, 귀찮다고 생각해서 말대꾸를 하게 된다. 하지만 잠자려고 누웠을 때 하루를 되돌아보면 반성을 하게 된다. 죄송하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 또한 하기 힘들다. 외할머니께서는

“지연아, 돌아가시고 나서 잘하는 건 소용없다.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잘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막내 동생은 잠들기 전에 항상 부모님께 키스를 한다. 오늘은 큰 맘 먹고 나도 해봐야겠다. 나는 그동안 부끄러워서 안했었기 때문이다.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겠다.



구름빵 엉덩이

《하뿌의 분홍 리본 엉덩이》

김 다 연

[이천남초등학교 1학년 2반]



안녕 하뿌?

너는 큰 엉덩이 때문에 얼굴이 매일 시무룩하구나. 만약 내가 너였더라도 너처럼 늘 얼굴이 시무룩했을거야. 하지만 너의 친구들은 착해서 너 엉덩이

가 크다고 놀리지 않아서 좋겠다. 슬퍼하지 마. 엉덩이가 커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너는 엉덩이가 커서 풍선 빨리 터트리기 대회에서 1위를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핑크색 예쁜 리본도 리띠한테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아.

나도 엄마가 나한테 6살 때보다 통통해졌다고 말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아. 아빠도 내 배가 옛날보다 나왔다고 슬퍼하셔서 밤마다 윗몸일으키기 12개를 시키신단다. 그래서 나는 밥

을 골고루 먹어서 적당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오늘도 다슬기를
넣은 된장국을 먹었어.

하뿌야! 발레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엉덩이에 힘을 주고 다니면 엉
덩이가 작아진대. 너도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어. 이제부터 ‘스마일’
하며 늘 웃어야해. 약속해.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알겠
지? 그럼 안녕.

2015년 9월 17일

다연이가

이천시립도서관 2015 글 모음집

책바라기

| 발 행 일 | 2015년 12월 31일

| 발 행 처 | 이천시

| 발행부서 | 이천시평생학습과

| 인 쇄 처 | 디자인맥터

비매품